

# 盆栽時代

47

2018

Journal. The ERA of BONSAI Volume 100, No.47, 2018



소장자: 박점식



사단  
법인 한국분재조합  
KOREAN BONSAI GROWERS COOPERATIVE

# 한국분재조합 기구표

## Organization Chart

회 장



박 병 섭

역대 회장 및 고문



초대회장 박중기 2대회장 박종현 3대회장 인태평 4·5대회장 고기환



6대회장 여기동 7대회장 정대영 8대회장 이우근 9대회장 신흥수



10대회장 노업동 11대회장 박성수 12대회장 김한영 곽종욱



김맹환 김동철 정병문

수석부회장



강철원

감 사



강수민

총괄사업부회장



전국주

교·검부회장



김점섭

행정부회장



박홍재

수출유통부회장



김세원

대외협력부회장



조이성

이 사 (16)



손장태(서울) 강병락(부산) 우정일(대구) 김영중(인천)



윤석산(광주) 김연섭(대전) 박승국(세종) 심근도(경기)



강준철(광원영세) 박재현(충북) 홍의표(충남) 유경수(전북)



김성식(전남) 양익석(경북) 이일문(경남) 강창운(제주)

사 무 처



이용열 사무처장



임세순 과장

지 부 장 (18)



이동욱(서울) 강남철(부산) 권오열(대구) 이종고(인천) 강남길(광주)



이화영(대전) 박무동(울산) 최정호(세종) 김석현(경기) 손주희(광원)



정재하(광원영세) 이상욱(충북) 박윤복(충남) 송근섭(전북) 김용목(전남)



이원준(경북) 김대성(경남) 현경하(제주)



<b>신년사</b>	<b>04</b>	분재산업 활성화와 조합 수익창출 및 조합원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 박병섭 회장
<b>분재전시회</b>	<b>06</b>	제29회 한국분재대전
	<b>17</b>	제14회 청풍분재전
	<b>19</b>	제5회 영호남 분재교류전
	<b>20</b>	탐라문화제
<b>해외시장 개척</b>	<b>21</b>	2018 프랑스분재박람회 참가 결과보고
	<b>33</b>	2018 중국시장개척 · 홍보단 파견 결과보고
<b>분재 기술</b>	<b>49</b>	소나무 문인목 개작 - 이화영 실장
<b>병해 특집</b>	<b>54</b>	철쭉류 잎녹병(13회) - 이승규 박사
<b>나무이야기</b>	<b>57</b>	풍년화 이야기 - 이노혁
<b>수출전략</b>	<b>62</b>	대중국 분재수출 전략 연구
<b>임업계 소식</b>	<b>87</b>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b>88</b>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b>국가공인 분재관리사</b>	<b>90</b>	국가공인분재관리사 자격시험 및 소양교육
	<b>91</b>	국가공인분재관리사 등급별 합격자 명단



## Cover Story

2018한국분재대전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  
수종: 소나무/충북지부 박점식

## 盆栽時代 2018년 통권 47호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 박병섭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2층 III-3호 (노은도매시장) (34146)  
TEL : 042) 822-5037, 5039 FAX : 042) 822-5034  
http://www.koreabonsai.com E-mail : bonsai3463@hanmail.net

**기획·편집** | 강철원 수석부회장, 이용열 사무처장

**출판등록** | 등록일 2001년 9월 4일 등록번호 서울바02941

**디자인·인쇄** | 성신기획 02) 733-8222 E-mail : shungshin@hanmail.net

**분재조합 계좌번호** | 예금주:한국분재조합

•경상비 : 355-0016-8272-73(농협) •교육비 : 355-0016-8283-53(농협)  
•경매비 : 355-0016-8278-93(농협)



## 분재산업 활성화와 조합 수익창출 및 조합원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를 맞아 조합원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번창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국분재조합 조합원 여러분!

저는 2018년 2월 조합원 여러분의 재신임에 힘입어 회장에 재선된 이래 사업현장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국 시장 개척단과 프랑스 분재박람회 홍보단을 파견하여 분재수출을 확대하였고, 국가공인 분재관리사자격검정 재공인 취득, 숲체험교육사업인 교도소 분재체험교육 등 사업 확장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근년의 분재산업 현실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 해도 힘들지 않았던 해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소비위축 등으로 어느 해 보다 많은 시련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존경하는 한국분재조합 조합원 여러분!

한국분재조합은 묵묵히 33년간 분재산업을 일구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안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다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해에는 침체되어 있는 분재산업 활성화와 분재조합의 수익창출 및 조합원 권익 신장 등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 분재전시판매장 설치 등 분재수출 확대 및 수출유망 수종 생산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중국 루가오 분재전시판매장 설치, 유럽 분재시장 개척, 수출유망 수종 생산)

둘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재 관련사업에 적극참여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서함양 분재체험교육, 분재전시회, 분재원 수탁관리 등)

셋째, 한국분재대전을 분재소비 촉진 전시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 개최, 작품전시 축소, 소품 및 일반소비자 선호분재 전시, 판매장 확대)

넷째, 분재관리사자격검정관리의 엄격한 운영과 응시자 확대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검정위원 위촉 검증 철저, 분재교육 분재원 등록 추진 등)

다섯째, 2020년 BCI세계분재산업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한국 분재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분재조합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대응하면 이 불황의 터널을 뚫어 낼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그 동안 쌓아올린 저력을 발휘하여 희망찬 발걸음으로 새 출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역점사업 추진에 조합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한국분재조합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조합원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회장 박 병 섭

# 2018년 제29회 한국분재대전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이 땀과 혼을 담아 정성으로 창작한 분재예술 작품을 모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청 갤러리에서 (사)한국분재조합(회장 박병섭) 주관으로 제29회 한국분재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분재대전은 『한국분재의 대중화와 수출 확대』라는 방향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함으로써 분재문화의 대중화와 소비창출에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4일 개막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 서울시 문길동 조경과장,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부회장, 한국임우회 박정식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한국분재조합 고문과 이사·지부장, 조합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섭 한국분재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2020년도 BCI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분재수출 확대를 위한 유럽 분재시장 개척홍보단을 파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분재공원 조성, 분재전시회 등 분재관련 사업을 적극 제안 권장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 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분재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체  
계 개선 등 정책적인 연구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분재  
문화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 분재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분재산업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출품작 심사결과 大賞(국무총리상)에는 소나무 작품(박점식), 金賞(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곰솔(문치호)와 철쭉(최정호), 銀賞(산림청장상)에는 곰솔(한유석), 마삭줄(임병민),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14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개막식장에서 격려사 하는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개막식장에서 환영사 하는  
박병섭 한국분재조합 회장



개막식장에서 대상을 전수하는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개막식장에서 우수상을 전수하는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개막식장에서 우수상을 시상하는  
박병섭 한국분재조합회장



분재대전을 관람하시는 내외 귀빈



분재대전 전시장 관람객



한국분재대전 개막식



분재대전 전시장 관람객



분재대전 전시장 관람객



2018한국분재대전 수상작  
수 상 작 품



국무총리상 (수종: 소나무 / 충북지부)



소장자 박점식



소장자 문치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종: 곰솔 / 전남지부)



소장자 최정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종: 철쭉 / 세종지부)



소장자 한 유 석



산림청장상 (수종: 곰 솔 / 전북지부)



소장자 임 병 민



산림청장상 (수종: 마삭줄 / 전남지부)



소장자 전용창



산림조합중앙회장상 (수종: 소나무 / 충남지부)



소장자 조명기



산림조합중앙회장상 (수종: 모과나무 / 충북지부)



소장자 심 상 원



한국분재조합회장상 (수종: 느릅나무 / 부산지부)



소장자 유 홍 열



한국분재조합회장상 (수종: 치자나무 / 경기지부)



소장자 윤 석 산



서울특별시장상 (수종: 눈향나무 / 광주지부)



소장자 이 우 열



양구군수상 (수종: 소품세트 / 인천지부)



소장자 이복열



양구군수상 (수종: 심산해당 / 충북지부)



소장자 이상원



한국임업신문사장상 (수종: 소사나무 / 대전지부)



소장자 차 동 엽



산림신문사장상 (수종: 벚나무 / 부산지부)





## 제14회 청풍분재전

2018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2층 대전시실에서 청주지역의 분재문화 진흥과 교류활성화 단체인 청주분재인연합회(이강희 대회장, 이상욱 한국분재조합 충북지부장, 이종영 한국분재협회 흥덕지부장, 이장희 한국분재협회 청주상당지부장) 주관으로 소나무, 노간주나무, 주목, 소사나무, 쥐똥나무 등 120점을 전시하여 분재동호인은 물론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 받았다.

개막식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한국분재조합 전국주 수석부회장, 한국분재협회 유창효 회장, 전국 분재단체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청주분재인연합회는 2017제13회 청풍분재전 분재경매 행사와 판매수익금의 일부(263만8천원)을 청주시에 기탁하여 저소득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 수종: 소나무 ■ 소장자: 이연훈



■ 수종: 소사나무 ■ 소장자: 박천규



■ 수종: 소나무 ■ 소장자: 고광수



■ 수종: 당단풍 ■ 소장자: 장길예



■ 수종: 쥐똥나무 ■ 소장자: 이강희



■ 수종: 노간주나무 ■ 소장자: 조원동



■ 수종: 주목 ■ 소장자: 손호중



■ 수종: 모과나무 ■ 소장자: 김용의

## 제5회 영호남 분재교류전

2018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제5회 영호남분재교류전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병섭 한국분재조합 회장, 송근섭 전북지부장, 이원준 경북지부장, 전국 분재관련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영호남분재교류전은 백제권과 신라권 분재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분재산업 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시회에는 한국분재조합 전북지부와 경북지부 조합원이 정성드려 가꾸어온 분재 120점, 분경 5점, 야생화 25점 등 총 150점이 전시되었으며, 개작시연회, 취미분재교실, 분재소품 나누어 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12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 제15회 탐라문화제

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 대표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 참여, 2018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15회 탐라분재전시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전시회에는 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조합원이 출품한 소나무, 해송, 주목 등 10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지부에서는 해송분재 100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분재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분재의 이해 및 수목 관리 방법 교재를 나누어주는 나눔 행사도 병행 실시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분재수출 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 2018 프랑스분재박람회 참가 결과보고

### I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 수출 유망시장의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수입산 유통경로 등 파악
- ▶ 한국의 우수한 분재 및 경쟁력 있는 물품을 전시하여 한국분재의 우수성과 기술력 홍보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흡한 분재 생산자에게 독자적 해외시장 진출능력 제고 기회 제공

#### 2. 사업 개요

- ▶ 사 명 : 제6회 European Bonsai san Show
- ▶ 참가기간 : 2018. 10. 4 ~ 9 (4박 6일)
- ▶ 장 소 : 프랑스 Saulieu
- ▶ 대상품목 : 분재
- ▶ 파견규모 : 5명
- ▶ 주요사업 내용
  - 한국분재 전시 및 판매장 개설 운영
  - 현지 분재시연회 개최
  - 바이어 및 현지 전문가 수출관련 의견 수렴
- ▶ 주요일정

일자	주요일정
10.4(목)	- 프랑스 입국
10.5(금)	- 매장준비 및 데모나무 체크      - 전시장 디스플레이
10.6(토)	- 판매장 개장 및 개막식 참석      - 시연회 개최
10.7(일)	- 박람회 참관                              - 분재 컨퍼런스 참석                      - 시연회 개최
10.8(월)	- 행사장 정리
10.9(화)	- 귀 국

※ 세부일정 : 붙임1 참조

## III 사업추진 결과

### 1. 박람회 참관

#### <박람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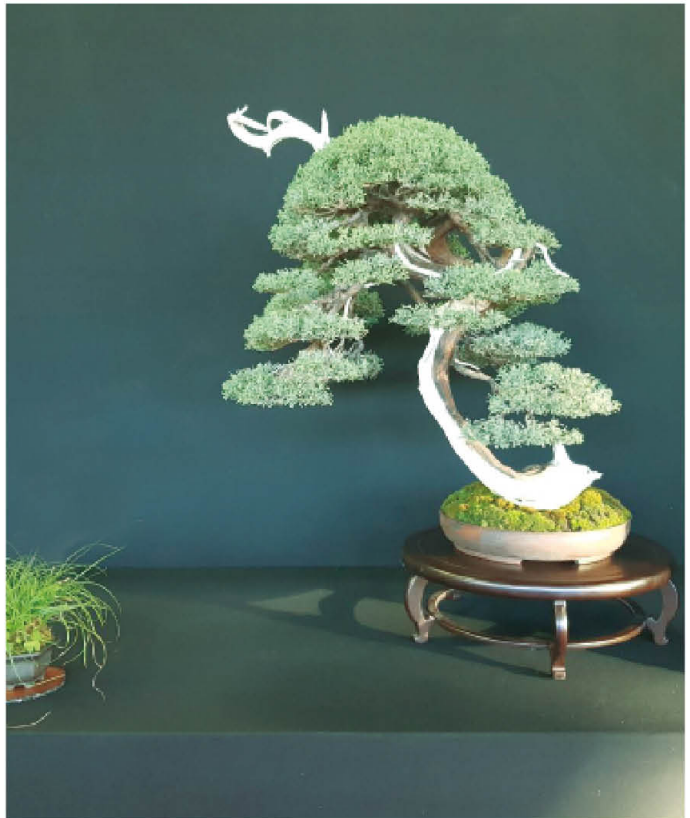
- 행사명 : 제6회 European Bonsai san Show
- 기간 : 2018. 10. 6. ~ 7.
- 장소 : 프랑스 Saulieu
- 규모 : 분재 200여점, 부스 90여개소
- 품목 : 분재, 화분 등 분재관련 물품
- 주관 : The organizer(Mr.Chanel Fredric) of European Bonsai san Show
- 성격 : 유럽지역의 분재생산 · 수입업체가 참여하는 판매 중심의 박람회
- 행사내용 : 분재전시, 분재관련 물품소개 및 분재 시연회
- 참가국 : 한국, 일본, 네델란드, 독일, 스페인, 체코 등 15개국

#### <박람회장 분위기>

- 유럽지역 생산 분재, 일본, 중국, 한국 등 수입 분재와 분재관련 화분, 책자 등이 90여개 부스에 전시되었고 생산자와 판매업자, 바이어가 함께한 유럽최대의 분재박람회에 걸맞게 진행됨
- 일본 등 동양 분재기술력의 전수로 전시분재의 작품성, 기술력에 있어 손색이 없었으며 수종 또한 다양성이 있었음
- 한국분재작가의 손 빠른 분재 기술시연과 예술성을 머금고 다시 태어난 완성작품에 찬사와 호기심으로 가득하였음

#### <관련사진>













## 2. 분재시연회 개최

### <추진 개요>

#### ■ 일시

- 1차 : 2018. 10, 6, 13:00 ~ 17:00
- 2차 : 2018. 10, 7, 12:30 ~ 14:00

#### ■ 장소 : 박람회장 특설 시연장

#### ■ 시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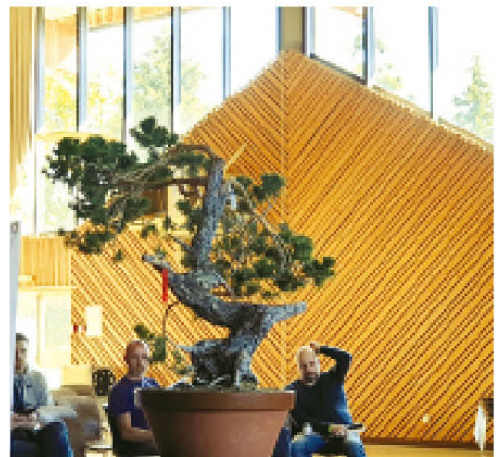
- 1차 : 김석주, 이광중
- 2차 : 최송호, 조원동

#### ■ 수종 : 진백, 소나무

#### ■ 성과

- 2차례의 시연회를 통하여 한국분재 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분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참관객 600여명)
- 시연회 후 Tony Tickle이 우리 데모팀을 UK National Bonsai Show(2019. 9. 14 ~ 15)에 초청
- 미국의 Frank Mihalic이 BCI & ABS Bonsai Convention(2020. 10. 9 ~ 11)에 데모팀 초청

### <관련사진>





### 3. 분재 전시 판매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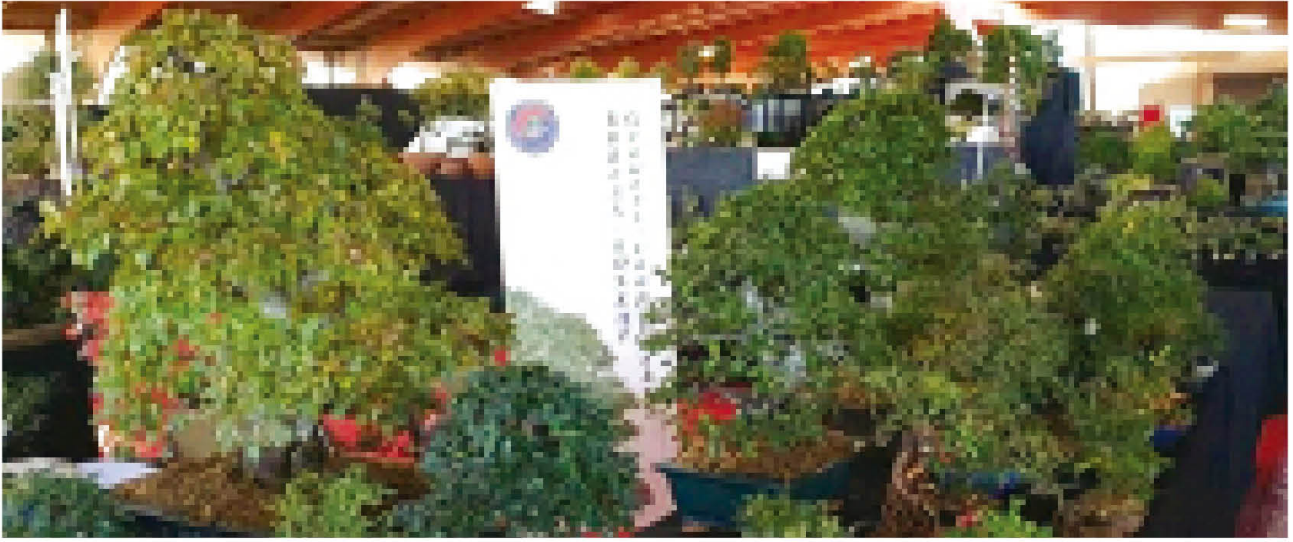
#### 1) 작품전시 판매

- 전시수량 : 31주
- 수종 : 소사나무, 진백, 장수매
- 부스 면적 : 30m<sup>2</sup>
- 성과

- 분재작품 전시 및 판매장운영으로 한국분재 우수성 홍보
- 전시된 작품 및 소재는 일부는 취미인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5개 업체에서 구매의사를 밝혔으나, 체코의 Bonsai Centrum으로 전량 판매(9,430€, 12백만원)됨

<관련사진>





<포장작업 사진>



## 4. 바이어 상담

### <상담실적>

- 건 수 : 총 4건
- 금 액 : 278천\$
- 계약금액 : 2건, 75천€

### <수출상담 사례>

-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독일 분재원 Bonsai Zentrum Heidelberg와 2019년 1월 선적을 목표로 49,261€(65백만원) 계약
- 스페인의 분재원 David Benavente Bonsai Studio와 25,488€ (33백만원) 계약
- 네델란드의 인터넷 판매전문인 Bonsai Plaza가 2019년 한국방문 예정

### <관련사진>



독일, 네델란드 바이어 상담



벨기엘 바이어 상담



체코 바이어 상담



바이어 간담회



바이어 간담회

### III 성과와 수출정책 건의

- 2018 분재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프랑스 제6회 European Bonsai san Show에 참가하여
  - 분재전시 판매(9,430€, 12백만원) 및 시연회, 바이어 상담을 통해 2건에 75천€(98백만원)의 수출계약 성사로 2019년 1월에 선적 계획
  - 네델란드의 Online 판매전문인 Bonsai Plaza와 수출 상담으로 2019년 한국방문을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한국분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는 있지만 다양하지 못한 수종, 가격대, 품질 등의 문제로 실제적인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개발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수출유망 수종은 내수시장에서 인기하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출 물량확보를 위한 수출유망 수종 생산량 증가 정책 필요
  - 현재의 분재 단품(單品) 수출은 중소 바이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분재관련 상품(알루미늄철사, 관런책자, 화분, 용토 등)을 개발하여 분재 꾸러미 수출 확대
  - 수출 확대와 한국분재의 세계적 홍보를 위한 세계분재대회 유치개최
  
- 현재 일본의 경우는 해마다 중국 및 유럽 바이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분재를 수출하고 있음.
  - 1950년대부터 엑스포에 분재를 전시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분재작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일본분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음.
  - 일본은 세계분재연맹을 발족시켰으며 1989년 오미야에서 제1회 세계분재전시회를 치렀고, 2017년 4월 다시 제8회 세계분재연맹대회를 열어 일본의 분재 위상과 분재수출을 견인하게 되었음.
  - 또한 분재에 뜻을 둔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찾아 분재를 배웠고, 또 분재를 배우고 있으며, 이들이 일본분재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분재를 수입판매까지 하는 바이어 역할까지 겸하고 있음.

<붙임1>

□ 세부 일정

일자	시간	방문 내용	비고
제1일 10.4(목)	13:20 ~ 18:30 19:00	- 출국(인천→파리) - 호텔 체크인	KE901
제2일 10.5(금)	09:00 ~ 18:00	- 매장준비 및 데모 나무 체크 - 전시장 디스플레이	
제3일 10.6(토)	09:30 ~ 18:00	- 박람회 준비 및 개막식 참석	기본일정
	13:00 ~ 17:00	- 시연회 개최	특별일정
제4일 10.7(일)	09:00 ~ 18:00	- 박람회 참관	기본일정
	10:00 ~ 12:00 12:30 ~ 16:00	- 분재 컨퍼런스 참석 - 시연회 개최	특별일정
제5일 10.8(월)	09:00 ~ 15:00 15:00 ~ 18:00 21:25	- 행사장 정리 - 공항이동 - 귀국	KE902
제6일 10.9(화)	15:00	- 도착 및 해산	

□ 참석자 명단

No	임무	업체명	파견자	품목	소재지
1	운영총괄 (한국분재조합 수출유통부회장)	선유원	김세원	분재수출	경기 고양
2	홍보시연	태초원	김석주	진백, 주목	경기 광주
3		송호원	최승호	해송, 진백	충남 금산
4		금현분재	이광종	소사, 진백	경남 함안
5		송설산방	조원동	진백, 모과	충북 옥천



# (사)한국분재조합 수출협의회

## 2018 중국시장 개척·홍보단 파견 결과보고

### I 사업 목적

- ▶ 중국 분재 유통시장 및 수입업체 동향 및 유통경로 등 파악
- ▶ 수입업체와 바이어 대상으로 한국분재의 우수한 상품성을 집중 홍보로 새로운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흡한 분재 생산자에게 해외시장 진출능력과 공동협업체 의식 고취, 수출유망 수종 파악, 소재 국내생산 유도

### III 사업 개요

- ▶ 파견기간 : '18. 11. 12(월) ~ 16(금) (4박 5일)
- ▶ 파견지역 : 중국(상해, 태창, 닝보, 루가오)
  - \* 지역선정사유 : 중국내 분재수요 및 거래가 활발한 곳이며 기존 수입업체를 거점으로 분재시장 개척 및 확대가 요구되는 지역임.
- ▶ 파견규모 : 11명(수출·생산업체 10, 운영요원1)
- ▶ 주요 활동내용
  - 중국 분재시장(상설 전시판매장 진출) 동향 및 유통실태 파악
  - 바이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분재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집중홍보(브로슈어 제작)로 새로운 바이어 발굴
  - 현지 바이어,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수출 관련 요구 의견 수렴 및 수입 선호 수종 파악 등

### III 파견 인원

연번	업체명	경영내용	파견자	연락처	소속	직위
1	예목원	o포지면적: 5,600㎡ o수종: 무늬동백등 o재배본수: 3,000본	박병섭 (朴秉燮)	010-6691-1000	조합	회장
2	선유원	o하우스: 4,300㎡ o수종: 단풍나무등 o재배본수: 45,000본	김세원 (金世元)	010-5306-2226	경기지부	수출유통 부회장
3	대신원에	o포지면적: 3,630㎡ o수종: 해송, 향나무 o재배본수: 3만본	문응식 (文應植)	010-9032-1354	경기지부	
4	동욱분재	o포지면적: 2,600㎡ o수종: 진백, 명자 등 o재배본수: 4천본	이동욱 (李東旭)	010-5250-6360	서울지부	서울 지부장
5	(주)일진글로벌	o포지면적: 3,500㎡ o수종: 남천 등 o재배본수: 300본	조병상 (曹炳祥)	010-3717-3602	인천지부	
6	임금봉분재원	o포지면적: 2,100㎡ o수종: 소사나무 등 o재배본수: 900본	최정호 (崔晶鎬)	010-5428-4110	세종지부	세종 지부장
7	푸른언덕분재원	o포지면적: 60,000㎡ o수종: 향나무 등 o재배본수: 1,000본	이종백 (李種百)	011-405-1691	대전지부	
8	청풍분재교실	o포지면적: 1,700㎡ o수종: 소나무 등 o재배본수: 1,000본	조명기 (趙明基)	010-5465-1479	충북지부	자문 위원
9	공주식물원조경	o포지면적: 50,000㎡ o수종: 주목, 철쭉 등 o재배본수: 20,000본	이영섭 (李榮燮)	010-9559-2400	충남지부	
10	성문분재농원	o포지면적: 6,200㎡ o수종: 소나무, 피라칸사등 o재배본수: 2,000본	염규성 (廉奎晟)	010-8860-4030	전남지부	
11	한국분재조합		이용열 (李勇烈)	010-8812-4889	조합	사무 처장

## IV 일정 및 방문내용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일 11/12(월)	08:35 ~ 09:45 10:30 ~ 14:00 14:00 ~ 15:30 15:30 ~ 18:00 18:00 ~	출국(인천 → 상해) 이동(상해 → 태창시), 중식 분재원 방문 이동(태창시 → 상해) 석식 후 호텔 투숙	KE 897  西庐盆景园  상해
제2일 11/13(화)	09:00 ~ 12:00 12:00 ~ 15:00 15:00 ~ 19:00 19:00 ~	버스이동(상해 → 루가오) 판매장관람, MOU체결 버스이동(루가오 → 닝보) 석식 후 호텔 투숙	花木大世界  닝보
제3일 11/14(수)	09:00 ~ 11:00 11:00 ~ 13:00 13:00 ~ 18:00 18:00 ~	수입업체 및 판매장 방문 현지 수출입 상담회 및 중식 분재원 방문 및 이동(닝보 → 상해) 석식 후 호텔 투숙	绿凤传奇艺术品有限公司  綠野山庄 상해
제4일 11/15(목)	09:00 ~ 12:00 12:00 ~ 13:00 13:00 ~ 18:00 18:00 ~	분재원 방문 및 간담회 중식 식물원 방문 석식 후 호텔 투숙	先有緣 및 楊行花木城  上海植物園 상해
제5일 11/16(금)	09:00 ~ 12:00 14:00 ~ 17:00	공항 이동, 중식 귀국(상하이 → 인천)	KE 898



### 1. 西庐盆景园(서려분경원)

#### ■ 분경원 개요

- 대표자 : 孙程辉(손정휘)
- 주 소 : 苏州 太仓市 昆太路 1108号 西庐湿地公园  
(소주 태창시 곤태로 1108호 서려습지공원)
- 연락처 : 0512-5399-9669
- Email : tradebonsai@gmail.com
- 규 모 : 약 8만㎡ 면적에 진백, 소나무, 단풍나무, 소사나무 등 수입목 중심으로 분재 4천 여점 관리
- 직 원 : 7명, 매년 직원해외 연수 실시 견문을 넓힘.
- 특이 사항 : 중국 최고 경제인인 마윈 사장이 방문하여 분재를 사갔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중국방문 행사에 분재를 임대 해주는 등 중국의 명문 분경원으로 중국분재업계 3,4위 바이어임

#### ■ 간담회 주요내용

##### <중국 바이어>

- 분경원 개원 당시에 한국분재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현재는 일본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음.
- 앞으로 고객을 모아 단체로 한국에 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한국분재를 수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 과거 한국에서 분재를 구입하려 했는데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니 조합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람.
- 소품으로 100~200위안(한화 17,000원~34,000원) 정도의 진백, 열매분재에 관심이 있으며, 소나무는 관심 없음.

##### <한국 홍보단>

- 2020년 세계분재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대회에 초청의사 제시하여, 바이어는 금년이나 내년에 한국방문 의향 제시함
- 한국분재 홍보 브로슈어 설명 및 한국 방문과 분재수입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신규 바이어로 큰 관심이 있음을 전달
- 현장 소나무 개작을 참관하여 개작 및 전지기술 등 교류

<관련사진>



## 2. 花木大世界(화목대세계) 방문 및 MOU체결

### 1) 화목대세계 개요

- 이사장 : 왕지강(王志剛)
- 주 소 : 江苏省 如皋市 花城大道 399号
- 전 화 : 18862914888, 051387770666
- e-mail : wzg@huamu0101.com
- 홈페이지 : www.huamu0101.com
- 규모 : 6백만m<sup>2</sup>, 교역시장 2백만m<sup>2</sup>, 생산기지 4백만m<sup>2</sup>
- 운영실태
  - 운영형태
    - ▶ 국가별 임대 운영(대만)
    - ▶ 화목대세계 회사 직영
    - ▶ 개인업체 임차운영 : 분재취급 업체 200여 개소
  - 3~5월이 성수기이고 도매(70%)중심으로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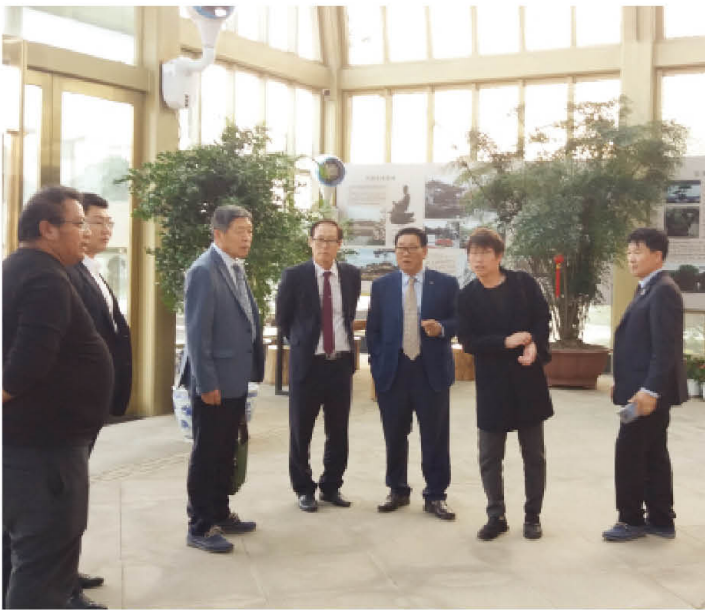
### 2) 활동사항

#### <직영판매전시장 방문>

- 시설구성 : 분재전시 판매장, 수석전시 판매장, 화분 등 자재판매장
- 전 시 : 실내와 실외 및 수개의 원으로 구분 조성하고 전시하여 관람효과와 구매 분위기  
기를 극대화하였음.

#### <관련사진>





<개인운영 분재원 방문>

- 업체명 : 花心思盆景(화심사분경)      - 대표 : 康传健(강전건)
  - 주소 : 如皋市 花木大世界花 中心大道 2-4号
  - 전화 : 18901476777
  - 판매수종 : 소나무, 해송, 진백, 노아시 등 다양한 수종의 소·중품 및 대작 2,000여점 보유 판매
- ※ 한국산 분재 진열 판매 진백, 해송 등 400여본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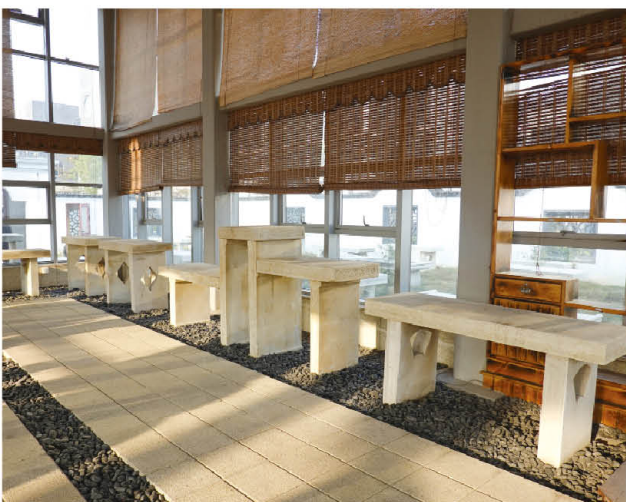




<한국사용 예정 전시장 답사>

- 위 치 : 화목대세계 대로 동편 위치, 들레에 담장설치로 외부 접근 차단
- 총면적 : 200여 평(목측)
- 건 물 : 40여평                      - 야 외 : 160여평
- 상 태 : 현재는 비어 있고 건물은 양호하였으며, 건물 내 및 실외 부지에 전시대 설치(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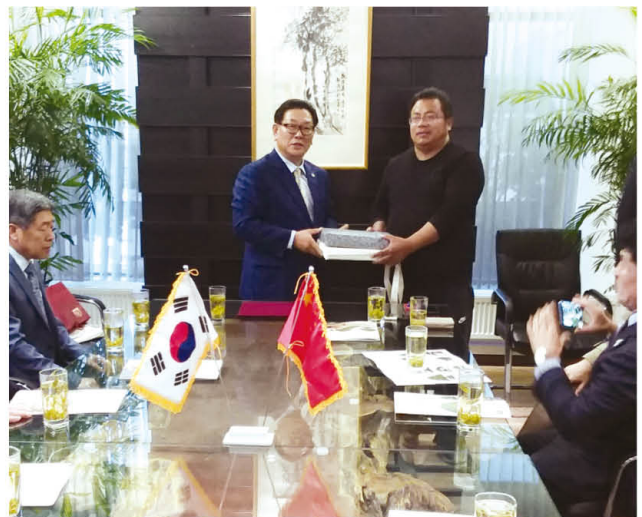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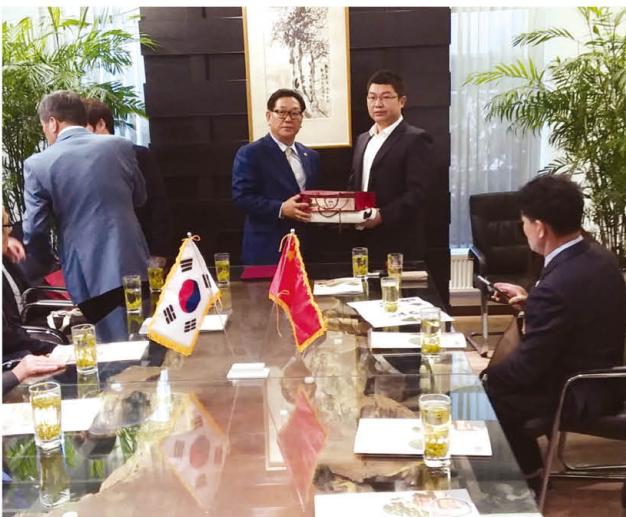
<관련사진>



### 3) MOU 체결

- 일 시 : 2018. 11. 13. 16:30 ~ 17:40      - 장 소 : 화목대세계 사무실
- 참석자 : 한국분재조합회장 등 11명, 산림청 임업통상팀 곽은경 사무관, 화목대세계 왕호 총경리 등 직원 5명
- 협약개요
  - 체결 당사자
    - ▶ (사)한국분재조합 회장 박병섭
    - ▶ 화목대세계(루가오)국제정원도시 이사장 왕치강
  - 내용
    - ▶ 상호 분재전시 전람지원 및 기술교류 협력
    - ▶ 분재 전시판매장 건물 등 제공(수수료징수) 및 사용협조
  - 진행
    - ▶ 박병섭 (사)한국분재조합회장, 왕호 총경리 인사
    - ▶ MOU 체결 서명 및 교환, 선물교환, 기념촬영 등

#### <관련사진>



### 3. 寧波 天胜花鸟 市场(영파 천성화조시장) 방문

#### 1) 연봉전기에술품유한공사 방문

- 총경리 : 娄浙哲 (LouZhe zhe)
- 주 소 : 宁波市 海曙区 天胜花鸟市场 一号门(販賣場)
- 전 화 : 8613056845156 - e-mail : 13056845156@163.com
- 취급 품목 : 한국도자기분재, 분재, 화분, 소품분재 전시대 등
- 수출 상담회 주요내용

#### <娄浙哲>

- ▶ 한국 도자기분재에 대한 샘플 수입에 소비자의 반응도 있고, 검역통관에 문제가 없어, 2019년도에 한국 도자기분재 등 수입을 확대 계획 표명

#### <한국 홍보단>

- ▶ 한국분재 홍보 브로슈어 설명 및 도자기 분재 등 분재수급에 협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유대 강화 협조 요청

#### <수출계약 체결>

- ▶ 대신원에(대표 문응식)과 연봉전기에술품유한공사(바이어 娄浙哲)간에 수출상담 결과 2019년 선적 목표로 도자기분재 등 500천\$(5.6억원)계약

#### <관련사진>



## 2) 천성화조시장 분재원 방문

- <金龙盆景园(금룡분경원)> 등 3개 분재원

명칭	대표	연락처	취급수종	본수
금룡분경원	요금룡	13355950118	흑송, 오엽송, 진백, 회양목등	1,000여점
흙룡원에	리여사	18968296008	라한송, 진백, 수생식물 등	500여점
소채분경 과수기지	채근평	13355950118	흑송, 오엽송, 진백, 회양목 등	700여점

⇒ - 대부분 중국분재, 일부는 일본, 대만에서 수입한 분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국분재는 없었음.

- 한국산 진백, 소나무, 피라칸다 등 열매분재를 선호하며 한국분재 판매 의향이 있어 대상(大商) 바이어를 통한 판매루트 개척 필요

### <관련사진>



### 3) 녹야산장

- 분재원 개요

▶ 대표자 : 袁心義(원심의)

▶ 연락처 : 13905742626

▶ Email : 13056845156@163.com

▶ 2015년 4월 조성된 분재원산장으로 면적은 14,000m<sup>2</sup>이며, 2,500여점의 분재를 보유하고 관람개방 및 판매하고 있으며, 고가 및 예술작품 다수 소장함

<관련사진>



#### 4. 先有緣(선유연) 및 楊行花木城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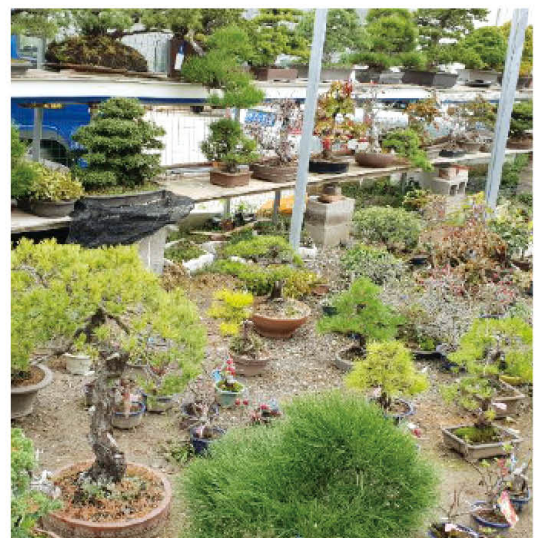
- 분재원 개요

	先有緣(선유연)	楊行花木城
대표자	陈旻(진민)	小朱
연락처	13122690080	56451830
Email	1922709253@qq.com	-
규 모	면적 1,500㎡에 진백, 소나무, 소사나무, 피라칸다 등 15천여점보유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분재가 70% 차지함	면적 4,600㎡에 진백 장수매 등 13천본 보유 판매 한국분재 없음

- 현지간담회 주요내용

- ▶ 선호하는 한국분재는 진백, 소나무, 피라칸다, 열매분재 등임
- ▶ 한국분재조합은 전국에 걸쳐 좋은 분재를 생산하고 있으니 전국의 조합원 재배지를 방문하여 더 다양한 분재를 가져가기를 부탁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갖도록 협조 노력
- ▶ 한국 분재수입을 위하여 금년 내에 한국을 방문계획이니 조합에서 많은 협조를 바람

<관련사진>



## 5. 상해식물원 방문

- 소재지 : 上海市徐汇区龙昊路1111号

- 전 화 : 54363369                   - 공식사이트 : <http://www.shbg.org>.

- 설 립 : 1974년 설립, 면적은 81.86헥타르 종합 식물원이다.

- 구 성 : 분재원 비롯한 송백나무원, 두견원, 장미원, 단풍나무원 등 15개원

- 간담회 논의 협조 사항

▶ 상호 분재자원과 분재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분재 문화의 발전을 위해 분재 전시 및 정보교류에 협력

▶ 한국정부 및 지방정부의 분재원등 건립에 따른 상해 분재원 및 박물관 관리기술 교류 협력

### <관련사진>



## V 성과·발전 방향 및 건의

■ 2017년 첫 정식통관 중국 분재수출 이후 중국의 사드 관련 통관 강화 등의 요인으로 미미 하였던 대중국 분재수출 확대목적의 분재수출협의회를 통한 대중국 분재 수출시장개척 및 홍보단 운영 결과

- ① 2019년 선적(船積) 목표로 대신원예(대표 문응식) + 연봉전기예술품유한 공사(바이어 娄浙哲)간 도자기분재 등 500천\$(5.6억원) 수출계약체결
- ② 중국의 최대 분재 등 수출 시장인 화목대세계(루가오)국제원예성에 한국 분재 상설 전시판매장 개설 기반확보
  - 국제원예성과 전시 판매장(약200여평) 사용 협력 MOU 체결 교환
- ③ 바이어·분재유통업체·상해식물원과 현지상당 및 한국분재 홍보활동을 통해 2019년 한국방문유도 초청하여 분재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
  - 西庐盆景园 孙程辉(서려분경원 손정휘), 先有緣 陈旻(선유연 진민) 방문계획
  - 한국내 분재원등 건립에 따른 상해 분재원 관리기술 지원 협력
- ④ 중국분재시장 동향 및 바이어 요구사항
  - 분재시장 최 일선의 소매 분재원에서 한국분재 판매 의향은 있으나 한국 분재 공급 부재
  - 바이어와 판매업체는 한국의 진백, 소나무, 피라칸다 등 열매분재로 소품 100~200위안 (한화 17,000원~34,000원)가격대 선호

### ■ 발전 방향 및 건의

#### <한국분재조합 및 조합원>

- 루가오 국제원예성에 한국분재 전시판매장 개설 추진·운영방안 강구
- 바이어 요구기준에 부합되는 분재 개발 및 생산
- 수출대상 분재 품종, 규격별 생산량 조사 및 생산 대책 강구

#### <정부 건의>

- 루가오 국제원예성에 한국분재 전시판매장 개설 사업비 국비지원
- 대상(大商) 바이어를 통한 중국시장 최 일선 소매 분재원에 한국분재 공급 과제 연구 및 정책개발
- 수출대상 분재 품종, 규격별 생산량 조사사업 국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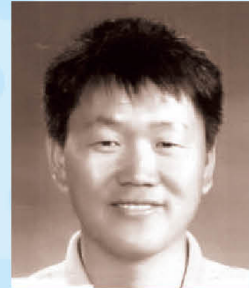


# 소나무 문인목 개작

소재는 경매장에서 구입, 철사걸이하여 개작하였습니다.



< 소 재 >



이화영  
한국분재유통(주) 실장



< 완 성 >

## 예상 수형 설계

수형은 3가지 수형구상 하였고 그 중에 쉽고 빠르며 시원한 수형인 모양목형 문인목으로 선택하여 작업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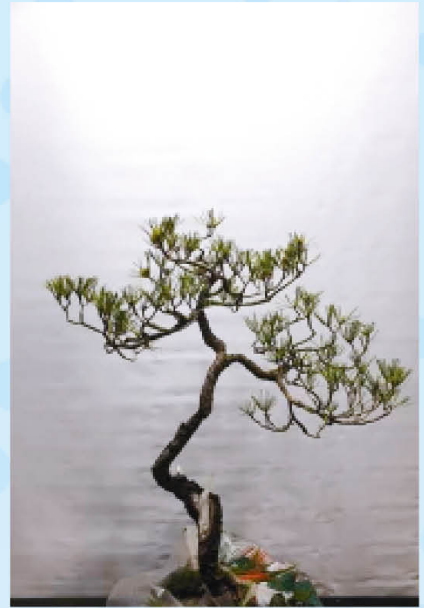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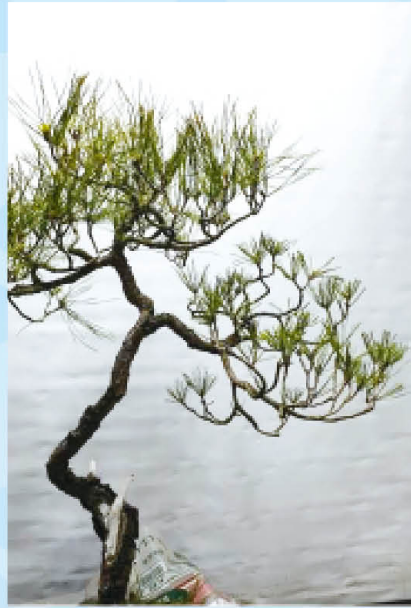


## 소재의 전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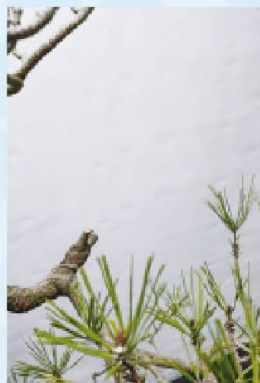


## 앞 솜기·앞 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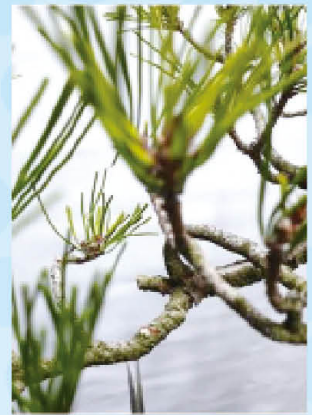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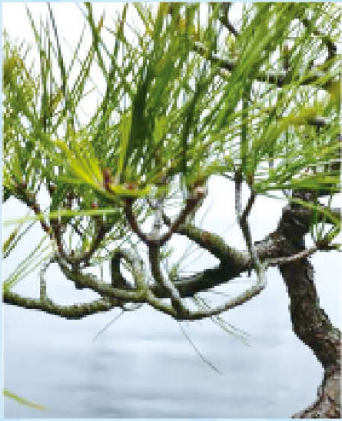
무성한 앞을 균일하게 수를 맞추어 솜아내고 앞의 길이도 장단을 고려하여 긴 앞의 3분의 2를 잘라주어 동일한 길이로 맞추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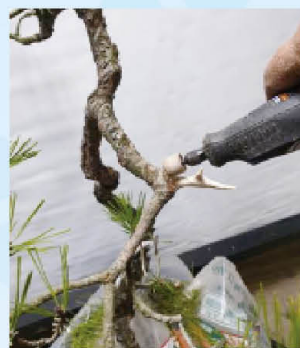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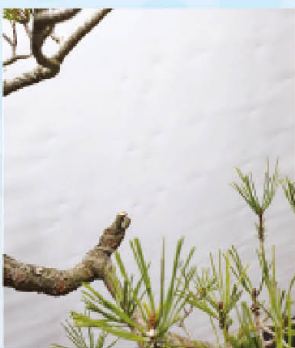
## 가지치기와 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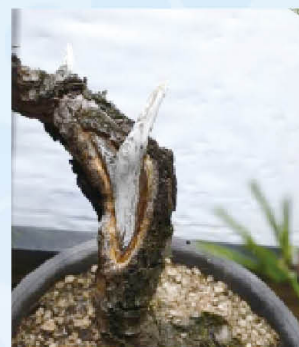
수형에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고 신을 만들 가지는 남겨두며 전지합니다.  
한곳에 3가지가 난 것은 하나를 잘라내어 뭉친 느낌을 없애 줍니다.



## 사리의 신 만들기



기존사리에 유황합제 처리가 넓고 지지분해 사포로 갈아내고 송진이 덩어리처럼 뭉쳐있어 제거 후 홈칼로 파내어 목질부와 표피 사이에 선을 만들어 너무 넓어 보이는 사리 면적을 줄여보이게 하였습니다.



가지의 신은 걸쭉질과 속껍질을 제거하고 사포로 갈아내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색이 바래서 누렇게 됨)

분에 앉히고 철사로 머리를 앞으로 숙여 안정감과 평안함을 더했습니다.



## 분갈이

1번 복분으로 안정감은 있으나 작은느낌  
 2번 민원분으로 무게감 있고 크기 적당  
 3번 육각분으로 변화 있고 족이 있어 통풍 용이하나 크기가 큼

4번 사발형 원분으로 변화있고 크기 적당 색이 열음=자연스러움 결정



## 감상



# 철쭉류 잎녹병(13회)



농학박사 이승규  
한국수목보호협회

이번 호에는 분재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쭉의 잎녹병과 점무늬병을 소개합니다.

## ▣ 철쭉류 잎녹병

- 영 명 : Rhododendron (leaf) rust
- 병원균 : Chrysomyxa ledi (=Chrysomyxa rhododendri)
- 기 주 : 진달래, 털진달래, 산철쭉 등 철쭉류  
※ 중간기주 : 가문비나무속 수목
- 분 포 : 한국, 유럽, 미국, 북동러시아, 북부 중국 등 북반구의 전역
- 피 해 : 병든 잎은 대부분 마르면서 뒤틀리고, 일찍 떨어지므로 나무의 미관이 손상되며, 심하면 수세가 약해진다. 유럽 지역에서는 철쭉 잎녹병균의 중간기주인 가문비나무류에서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환(病環, disease cycle) : 5월 하순~6월 초순경, 잎의 앞면에 옅은 오렌지색의 작은 반점들이 점점이 나타나면서 그 뒷면에는 약간 부풀어 오른 엷은 갈색의 물질 같은 작은 돌기(여름포자퇴)들이 보인다. 물질의 막은 곧 터지면서 오렌지색의 가루덩이(여름포자)가 나출되는데, 이들 오렌지색 가루덩이(여름포자)는 8월까지 잎 뒷면에 나타나며, 가을까지 다른 철쭉의 잎으로 반복해서 감염된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오렌지색 가루덩이는 사라지고, 여름포자가 형성되었던 곳에서 붉은 갈색의 작은 돌기들(겨울포자퇴)이 잎 뒷면에 나타난다. 겨울포자는 곧 발아하여 담자포자를 형성하는데 이 담자포자는 바람에 날려 가문비나무의 잎에 전반되어 생활사의 고리가 완성된다.



그림 1. 철쭉류의 잎녹병 피해 모습(잎의 앞면) (사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림 2. 철쭉류의 잎녹병 피해 모습 (잎의 뒷면)  
(사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림 3. 잎 뒷면에 나타난 병반(여름포자퇴)  
(사진: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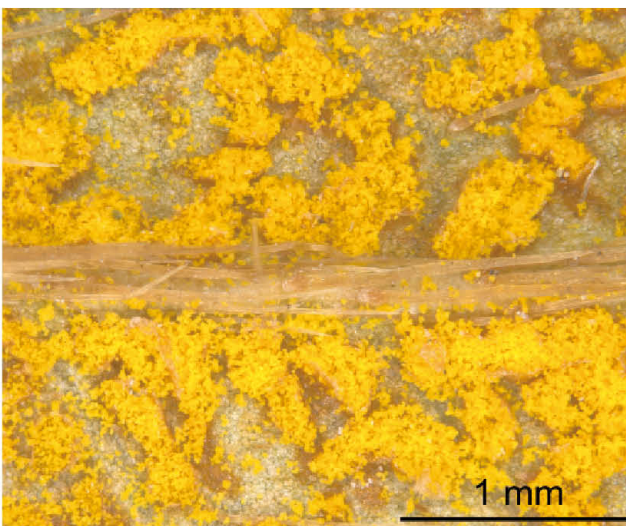


그림 4. 잎 뒷면에 형성된 여름포자  
(사진: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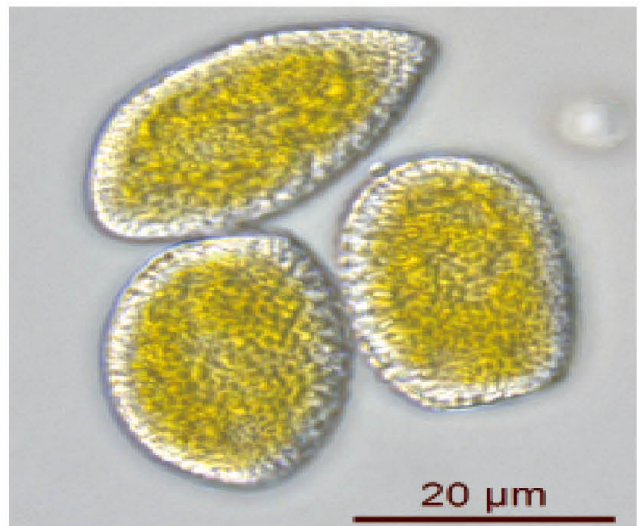


그림 5. 병원균의 여름포자  
(사진: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 철쭉류 점무늬병

- 영 명 : Leaf spot
- 병 원 균 : *Phyllosticta* sp.
- 기 주 : 철쭉류
- 분 포 : 전세계
- 피 해 : 병든 잎에는 적갈색 반점이 다수 형성되며 간혹 뒤틀리기도 하나 병든 잎이 일찍 떨어지는는 않는다. 병든 나무는 적갈색 반점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므로 관상적인 가치를 많이 떨어뜨린다.
- 진단특성 : 기주에 따라 병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산철쭉의 경우에는 잎에 붉은 갈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며 점차 직경 5mm 정도로 확대되어 적색 띠를 두른 갈색의 원형 반점이 형성된다. 반점은 주로 옆맥 사이에서 형성되며 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나타나기도 한다. 건전한 부분과의 경계는 붉은갈색 ~ 붉은색 띠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며 반점 안은 회갈색으로 변하면서 검은색의 작은 돌기가 형성된다. 반점의 뒷면은 앞면의 병징과 유사하나 약간 옅은 색을 띤다.
- 생태특성 : 담자각은 반점 안의 표피세포 아래에 형성되며 검은색을 띤 구형으로서 크기는 50~250 $\mu$ m이다. 성숙하면 표피를 뚫고 나오며 중앙부에 구멍이 형성되면서 다습하면 담포자가 분출한다. 담포자는 무색이고 격막이 없으며 난형~장타원형으로 크기는 5~7 $\times$ 2 $\mu$ m이다.
- 방 제 : 등록된 약제는 없으며, 병든 낙엽은 봄에 새잎이 피기 전까지 모아 태운다.



그림 5. 철쭉류 점무늬병의 병든 모습(병징) (사진: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풍년화 이야기



이노혁  
조경특급기술자

풍년화는 한자명으로 풍연화(豊年花) 또는 금루화(金縷花)이고 영명으로 Witch hazel이며 일 본명으로 만사쿠라 부른다. 이 나무는 조록나무과에 속하며 여기에는 히어리속, 조록나무속, 풍년화 속이 있다.

풍년화속에 속하는 자생종은 세계적으로 10여종 내외인 것으로 알려 졌었으나 현재는 원예종을 많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만도 도입된 것을 포함하여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것이 30종 정도 되는 것 같다.

200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일본 원산인 풍년화 1종만 등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풍년화 종류의 자생종이 없으며 일본에서 1931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식재된 것이 서울 홍릉에 소재한 국립산림과학원(전 국립임업시험장)구내 수목원에 있는데 그 나무 높이가 7m 가량 되는 관목성 낙엽 소교목이다. 일본 원산인 이 풍년화는 도입 된지 오래되고 전국각지에 식재되어 있어 현재는 귀화 식물이 되었다.



풍년화들의 꽃은 봄의 눈 내림이 끝나지도 않고 계곡의 얼음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2월부터 피기 때문에 봄의 화신이니 봄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사라고도 하고 봄을 맞이하는 영춘화라고도 한다.

서울에서 가장 일찍 핀 해는 2002년 2월 7일이고 가장 늦게 핀 해는 1986년 3월 12일이라 한다.

## 1. 풍년화 이름의 유래와 전설

풍년화란 이름은 이른봄에 가지 끝부분에 꽃이 풍성하게 만발하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하여 풍년화란 이름이 지어 졌으며 또한 꽃이 그해에 일찍 많이 피면 풍년이 온다고도 하였다 한다. 풍년화 꽃이 가지에 많이 매달려 핀 모습이 곡물이 풍성하게 달린 것과 같다하여 풍년만작(豊年滿作) 풍년화라 하였다 한다.

또한 속명의 Hamamelis는 그리스어로 hamos 비슷하다를 뜻하고 melis는 사과라는 뜻의 합성어로 서양모과를 닮은데서 유래 되었다고도 한다. 보통 이름인 Witch hazel은 물속에서는 마녀의 지팡이가 이 나무의 수형과 비슷하다 하여 그렇게 불려 지기도하고,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찾을 때 이 나무의 가지를 이용하면 지하수를 찾는데 용이하여 마치 마술지팡이와 같이 신기하다 하여 그렇게 불리워 졌다고도 한다.

중국원산인 풍년화는 몰리스풍년화 인데 꽃잎이 황금색 실 같이 생겼다하여 금루매(金縷梅)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목리향(木理香) 이라고도 하고 우답과(牛踏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추운겨울 날씨에 핀다고 하여 인동화(忍冬花) 라고 부르기도 한다.

꽃말은 악령과 저주인데 꽃 이름에 비하여 고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꽃잎이 꼬불꼬불하고 악마의 머리털 모양이므로 이 나무를 집 가까이 심으면 마귀와 잡귀를 쫓는다는 뜻이 있는 것 같다.

## 2. 풍년화의 종류

풍년화의 자라는 모습이나 꽃의 모양과 색깔은 일부의 원예품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편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다. 원예종으로 개발된 것은 꽃의 색깔이 백색도 있고 짙은 주황색, 붉은 자색계통도 있다. 이곳에서는 널리 알려지고 많이 식재하고 있는 자생종 몇 개만을 소개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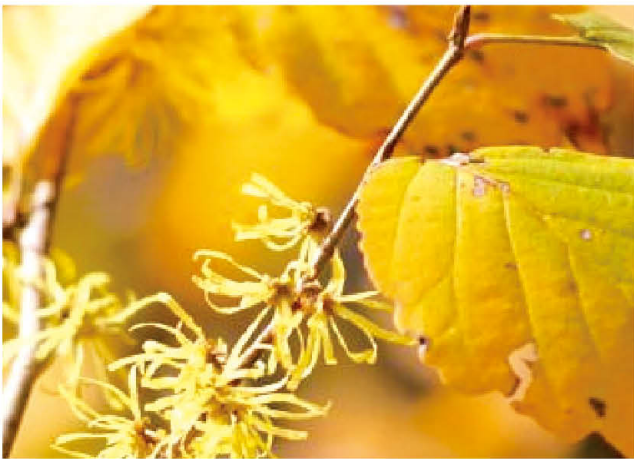
- \*. 풍년화(Hamamelis japonica S.et Z) : 일본이 원산이며 우리나라에 가장먼저 도입 식재 되었다. 꽃이 필 때 약간 비린내가 난다고 한다. 꽃색은 몰리스풍년화(중국 풍년화)보다 못한 편이다.
- \*. 몰리스 풍년화(Hamamelis mollis Oliv.생략) : 원산지가 중국이며 몰리스는 잎이 부드러움다는 뜻이라고 한다. 꽃의 향기는 일본원산인 풍년화보다 좋으며 꽃의 황금색깔이 진한 편이다.
- \*. 버지니아나 풍년화(Hamamelis virginiana L.) : 원산지가 미국 버지니아주인데 보통 서양풍년화라 부르고 있다. 미국이 유럽과 함께 광범위하게 서양으로 포함되기 때문인데 유럽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미국풍년화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럽에는 본래 풍년화가 없었는데 북미주가 개척된 후 영국인이 가져가 처음으로 식재한 것이라 한다. 풍년화는 꽃이 2~4월에 피는 것이 보통인데 버지니아 풍년화는 잎이 떨어지기 전인 늦가을 (10~12월)에 피고 꽃잎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 \*. 베르날리스 풍년화(Hamamelis vernalis Sarg.) : 원산지가 미국의 미조리주, 오클라호마주 및 아칸사스주 등이다. 꽃이 봄에 핀다는 뜻으로 베르나리스란 말이 붙었다고 한다. 꽃이 작고 주글주글함이 심하고 꽃받침이 다른종에 비하여 보라색이 강하고 다양한 편이다. 원예 잡종으로 많이 이용된다.



풍년화



몰리스 풍년화



버지니아 풍년화



베르나리스 풍년화

### 3. 형태적 생태적 특성

풍년화는 키가 보통 3~4m 정도 자라는데 7m까지도 자랄 수 있는 소교목이다. 낙엽 활엽수인데 잎 길이는 11cm 내외 이고 넓이는 6cm 2~4월에 피고 개화기간은 약 40일이다. 버지니아풍년화 만은 늦가을에 핀다. 꽃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낙엽수들이 잎이 떨어져 삭막한 이른 봄에 노란색의 꽃이 뭉쳐 피어 감상가치가 높고 개화기간이 40일 정도로 긴 편이어서 풍요로운 꽃 이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나무는 도시공해에 견디는 힘, 추위에 견디는 힘, 염분에 견디는 힘, 옮겨 심어도 잘사는 힘, 줄기에서 싹이 잘 트는 힘이 강하여 조경용이나 분재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할 수 있다. 다만 극 음지 극 건조지 극 습지에는 약한 편이며, 꽃이 화끈하게 피지 않아 고속도로변 자동차전용도로 변 등 동적관상 대상으로의 식재는 좋다고 할 수 없다.

### 4. 용 도

\*. 조경수 : 바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이식 활착이 잘되고

나무들이 잎이 떨어져 삭막한 시기에 노란 꽃이 오래도록 피어 정원 공원 교정 휴계녹지 등에 식재수로 좋다.

- \*. 분재소재 : 수형잡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맹아력이 좋고 원줄기나 가지에서 꽃눈이 잘나오고 꽃 색깔이 예쁘고 개화 기간이 40일 내외로 길어서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 약용 및 기타 : 민간요법으로 증류수는 살균성과 수렴성이 있어 수렴제로 부기나 부종을 가라 안치는데 사용하고, 중국에서는 지혈 치질 화상 부기 뽀루지 안약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용차로 사용 활용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200년 전부터 피부의 보습과 피부청결유지 및 진정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안정성이 높아 일반 약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FDA에서 허가한바 있다.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 5. 번 식

풍년화의 번식법으로는 종자파종법(실생묘법) 무성번식법 즉 삽목법(휴면지삽목과 녹지삽목), 접목법 및 조직배양법 등이 있는데 삽목법은 발근율이 나쁘고 접목법은 대목의 소재가 적고 조직배양법은 시설이 있어야 하며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실행이 어렵다고 본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종자파종법인데 이것도 초보자는 쉽지는 않다. 종자 파종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종자채취·탈각 :** 종자가 성숙한 9~10월 채취하여 음지에서 건조 시킨 후 비닐이나 천막을 깔고 살살 뒤집어 가면서 막대로 두들기면 흑미 비슷한 까만 종자가 쉽게 빠져 나온다.

### 나. 종자저장 및 발근처리저장

풍년화는 종자 휴면기간이 길어 보통 저장으로 파종하면 파종 후 2년차인 그 다음해에 발아되며 이럴 경우 1년 동안은 묘목이 없는 곳을 제초작업을 해야 하고 제초작업 시 묻힌 종자가 손실되어 발아본수도 적어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 된다. 보통사람들이 하기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키로 한다.

- 1) 정선된 종자를 11~12월에 노천매장을 하여 2년 겨울을 지난 후 3월 전후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 적이라 본다. 주목나무 종자도 휴면기간이 길고 종의가 매끈거리어 2년 겨울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하면 발아가 정상적으로 된바 있다.
- 2) 정선된 종자를 11월 하순에 왕모래와 종자를 1:1로 섞어 마대위에 놓고 강하게 마찰시켜 매끈한 종의가 약간 얼룩이 지도록 벗겨 노천매장을 한 후 3월 전후에 파종을 한다. 층층나무 종자를 이 방법으로 하였더니 발아가 정상으로 된바가 있다.
- 3) 정선된 종자를 11월에 왕모래와 마찰시킨 후 30~40일간 섭씨3도 이하에서 냉 저장한 후 1월초 에 물에 24시간 침적한 후 다시 노지 노천 매장을 하는 것도 효과적 일 것으로 본다.

\* 노천 매장 요령은 깨끗한 모래와 종자를 3:1 비율로 혼합 하되 물을 뿌려가면서 혼합하고 양파 망같은 마대에 담아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지표면보다 10cm 밑으로 묻어두고 차광 망 같은 것을 두 겹으로 덮어 보관 한다. 차광 망이 나오기 전에는 짚이나 검불로 덮었다.



눈에 덮인 풍년화



풍년화 잎.열매



풍년화 성숙과



풍년화 삭과



풍년화 종자

#### 다. 파종상 조성 및 종자파종

- 1) 파종상 조성 : 파종상의 구획은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상의길이는 20m 이내로 하고, 상의 폭은 90~100cm로 하며, 보도(步道)의 폭은 40~50cm로 한다. 상의 높이는 보통의 경우 7cm로 하며 포지가 습한 경우는 상의 높이를 10cm로 한다. 상 폭을 100cm 이상으로 하면 제초작업이나 솟음 작업 시 불편하고 보도 폭을 40cm미만으로 하면 앉아서 작업 시 엉덩이가 뒤쪽 식물을 해칠 수 있다. 상면 고르기를 할 때는 복합비료와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혼합 하는 것이 좋다.
- 2) 종자파종 및 덮기 : 종자 뿌리는 방법은 10cm 간격으로 2cm 깊이로 골을 타고, 가로 세로길이 3x3x100cm 각목으로 골을 진압한 후 한 골에 종자를 50알 정도 고루 뿌리고 부드러운 흙을 두께 2cm 정도 덮어 주고 흙 덮은 상부를 각목으로 살짝 진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종자파종이 끝나면 바로 표면 건조방지를 위해 비닐 차광망을 덮어준다.
- 3) 파종 후 관리 : 30~40일 후 종자가 발아가 시작되면 해가림 차광망을 걷어 주어야 한다. 표토가 건조하다면 관수를 해주고 걷어 주는 것이 좋다.
- 4) 잡초제거 및 시비 : 파종상의 잡초제거는 비가 온 후, 건조기는 작업 하루 전 오후에 관수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능률적 이다. 시비작업은 6월 초순에 1회 7월 중순에 1회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비료는 복합비료를 이슬이 없을 때 주어야 하며 1m<sup>2</sup> 당 50~100g 정도를 주는 것이 좋다.
- 5) 솟음작업: 1m<sup>2</sup> 당 종자 500알 정도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될 경우 300본 내외가 될 것이며 2~3회 솟음하여 1m<sup>2</sup> 당 70본 내외를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작업은 생략하기로 한다.

# 대중국 분재수출 전략 연구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산림청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생산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분재에 대한 국내 수요의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 소비 감소 등 분재업계는 소비 시장 위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경수와 분재의 국내 수요 부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조경수와 분재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발전에서도 뒤처졌다. 수출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국제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조경수·분재 산업의 기술발전 나아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경수와 분재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며, 예술성을 융복합하는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이다.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되며, 고급 주택 시장에서 조경수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부유층의 주택 또는 민간건물의 정원용 조경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일본산 나한송과 스페인산 올리브나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수입한다. 또,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분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 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산림청은 ‘2016년 임산물 수출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목표를 5억 달러로 제시하고,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제 2 장 우리나라 분재산업 현황

### 1. 분재 생산현황과 수출가능성

#### 1.1. 생산 현황

○ 우리나라 분재 생산액은 2005년 3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100억 원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가 2015년에 21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였다<표 2-3>. 추세를 살펴보면 분재 생산업은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분재 생산업이 위축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경기 침체에 따라 분재 수요가 감소하였고 화훼와 화분식물 등에서 외국 식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 분재를 가꾸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바쁜 현대인의 성미와 부합하지 않아 분재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분재가 지나치게 고급 취미로 인식되어 대중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시장이 위축되어 분재 생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분재 수요 침체에 더하여 생산자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에 따라 분재생산자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산림청의 임업경영실태조사(2016)를 보면 2015년 한해 분재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임가는 474가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분재생산자의 평균 재배본수는 12,552본이다<그림 2-4>.

표 2-3. 연도별 분재 생산 및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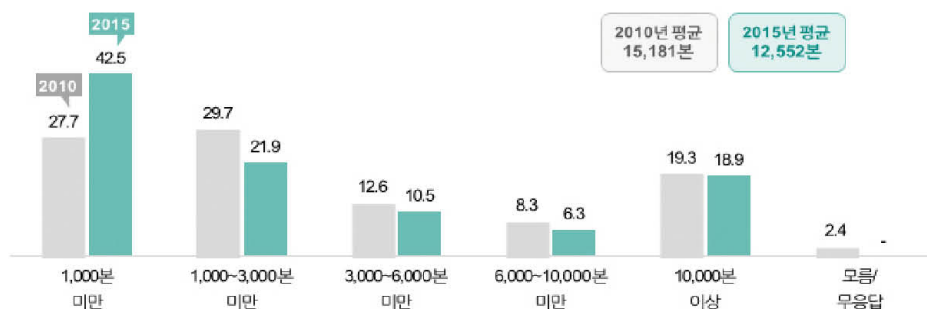
단위: 천 본,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재소재	수 량	1,156	1,004	1,299	1,279	2,409	1,102	891	1,308	431	378
	금 액	14,595	13,864	20,112	18,892	26,476	20,155	24,407	18,598	4,607	11,228
분재완재	수 량	295	290	234	238	192	215	182	96	94	201
	금 액	14,013	15,315	15,934	9,749	9,729	10,671	10,564	4,252	5,831	10,027

자료: 임업통계연보

그림 2-4. 분재생산자의 재배본수 분포

단위: %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2016)

- 생산자의 42.5%가 1천 본 미만 재배규모에 속하며, 1만 본 이상의 재배규모를 가진 생산자는 18.9%이다.
  - 평균 재배면적은 4,098㎡인데, 생산자의 47.0%가 1,655㎡ 미만의 재배규모에 속하며 20,178㎡ 이상 재배규모의 생산자는 2.3%에 불과하다. 대부분 생산자들의 재배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에 전업 분재생산자는 28.1%로 나타났다.
-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의 수종별 분재·분재소재 생산본수 분포는 <표 2-4>와 같다.
- 가장 많은 분재 수종은 소나무이며 그 다음이 소사나무, 모과나무, 명자나무, 철쭉이다. 상위 5개 수종이 45.7%를 차지하지만 3위 이하 수종의 비중이 대체로 5% 정도에 머물러 다양한 수종이 분재소재로 재배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분재는 수령과 수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수령에 따른 분포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수출가능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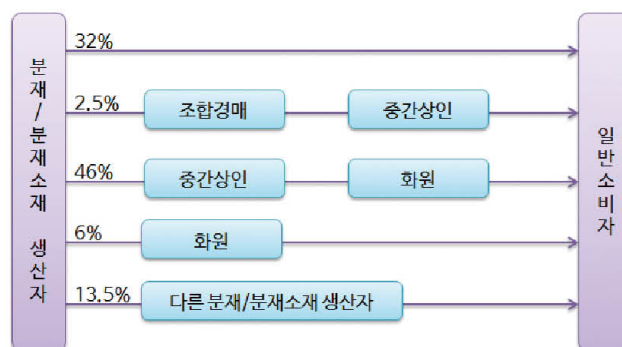
표 2-4. 분재 재배 수종의 분포

단위 : 천 본, 백만 원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년	소나무(17.1%)	소사나무(11.7%)	단풍나무(6.2%)	모과나무(5.8%)	철쭉(5.5%)
2015년	소나무(18.0%)	소사나무(9.1%)	모과나무(7.0%)	명자나무(5.8%)	철쭉(5.8%)

자료: 2015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그림 2-5. 분재·분재소재의 주요 유통경로



## 1.2. 유통

- 분재 유통은 애호가 중심의 전통 분재와 대중용의 소분재로 나뉜다. 분재의 유통경로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그림 2-5>.
-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중간상인에 의한 거래(46%)이며, 소비자 직거래도 약 32%를 차지한다. 분재 소재를 생산하여 다른 분재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3. 가격

-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분재 재배업 임가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 있는데, 수령이 높을수록 판매가격이 크게 높아진다<그림 2-6>. 어느 정도 수령의 분재를 수출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 수출 분재의 가격을 평가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 1.4. 수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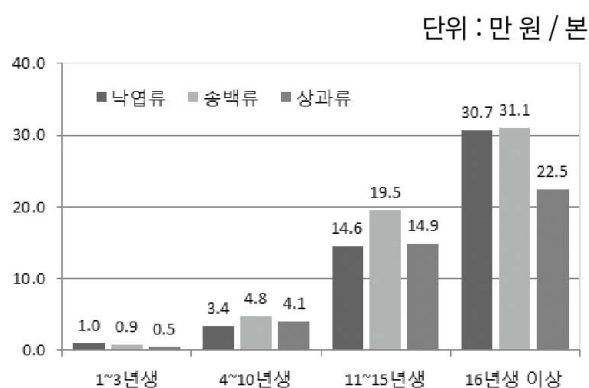
- 국내 생산하는 분재에서 소나무 분재가 가장 많지만 중국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모과나무, 소사나무 분재도 많이 있다. 다만 분재 수령에 대한 통계가 없어 어느 정도 수량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분재업계에 따르면 모과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 중국에서 선호도 높은 고급분재는 다수 있다고 한다.

- 중국의 분재 애호가들도 한국 분재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분재 생산의 규모가 영세하여 생산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만 중국으로 분재를 수출하는데 흙만 제거하면 되므로 대규모의 격리재배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여러 재배자에게서 수집한다면 수출 물량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분재는 흙 없이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에 대응하는 것도 용이하다.

- 관건이 되는 것은 상품성이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수형과 수령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흔하지 않는 수종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멋진 수형을 갖춘 분재 작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조형 기술을 과시하면서 한국적인 미(美)를 표현한 분재 작품이라면 그 가치가 배가될 것이다.

그림 2-6. 분재 재배자의 수령별 분재 판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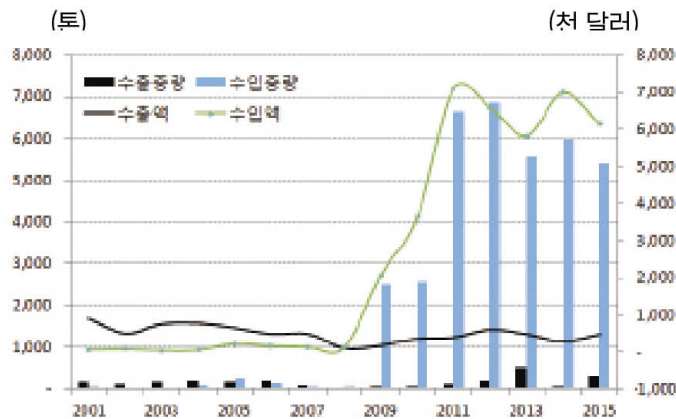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 2.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입 동향

### 2.1. 수출입 동향

- 조경수와 분재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수종도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대형 조경수와 소형 분재도 구분하기 어렵고 수종에 대한 정보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그림 2-3>는 2001년 이후 산림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산림수목의 수입액은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600만 달러 이상에 이르지만 산림수목의 수출은 5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분재용 비중이 50% 이상으로 보인다.
  - 수출입 되는 식물의 종류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출입 식물이 산림수의 기타(0602.902099)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종보다는 다소 특이한 수종이 수출입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3. 산림수목의 수출입 동향



주: HS 코드 0602.902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입되는 산림수목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목 수입액의 70%를 차지한다.
  - 수목 수출에서는 대만의 비중이 크다. 2013년 중국으로 수목 수출이 있었지만 2015년에는 전혀 없다. 기타 유럽 국가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에도 일부 수목 수출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 수량과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 일부 선구적인 분재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일부 분재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다.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베트남이나 대만 등으로 수출되는 분재가 우회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주요 대상국별 수목 수출입 현황

구분	국 가	2013년		2014년		2015년	
		수량(톤)	금액(천 달러)	수량(톤)	금액(천 달러)	수량(톤)	금액(천 달러)
수출	전 체	512	470	51	270	284	466
	대 만	220	78	-	-	195	157
	네 델 란 드	6	41	-	-	16	112
	스 페 인	14	78	6	43	7	59
	독 일	10	76	11	59	2	22
	이 탈 리 아	-	-	10	65	-	-
	카 자 흐	-	-	-	-	59	41
	중 국	261	196	14	31	-	-
	기 타	1	1	10	72	5	75
수입	전 체	5,572	5,821	5,980	6,984	5,398	6,152
	중 국	4,041	4,468	4,532	5,611	3,561	4,303
	인 도 네 시 아	874	410	1,082	670	1,284	830
	코 스타 리 카	94	243	50	203	111	360
	대 만	302	232	188	147	230	197
	일 본	1	20	20	154	2	123
	기 타	260	448	108	199	210	33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림수 0602.9020

## 2.3. 수출의 애로사항

### 3.3.1. 분재

- 분재의 경우 흙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진행 과정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 재배시설이 필요하다. 재배 단계부터 수태 혹은 인공토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전문 재배 시설이 필요하다.
  - 미리 콘크리트로 만든 재배 단지에서 60cm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며 재배해야 한다.
- 물류비 보조,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보다는 실제 수출이 가능한 업체 또는 수출에 의욕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서류 준비부터 수출까지 전폭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제 3 장 중국의 분재 시장 현황

#### 1. 분재 시장동향

##### 1.1.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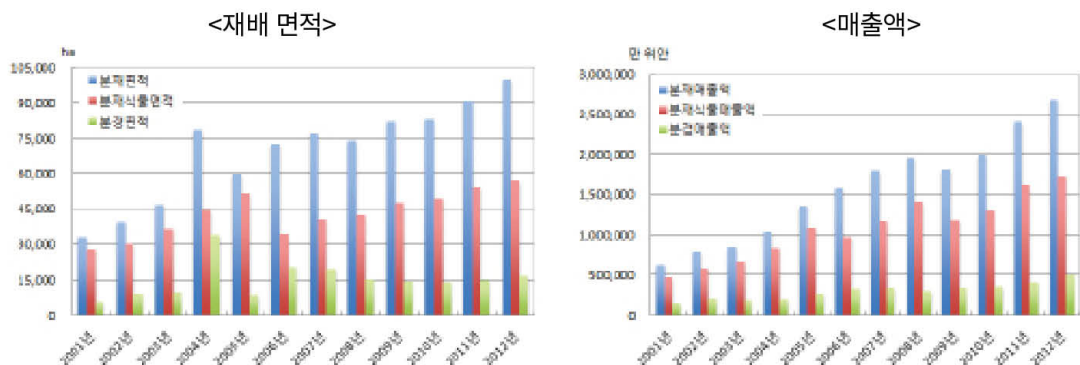
○ 중국 화훼재배 면적은 2013년 122.71만 ha이며, 2012년(112.03만 ha)보다 9.54% 증가하였다. 판매액은 1,288.11억 위안으로 2012년(1,207.71억 위안)보다 6.66% 증가하였다. 증가량은 주로 식약용 식물, 관상용 묘목, 분재식물 등에서 발생하였다. 화훼 수출액도 증가하여 2013년 6.46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생절화류 비중이 크다. 2014년 중국 화훼 판매액은 1,404.04억 위안에 달하였다.

표 3-2. 중국 화훼통계(2012년)

항목	면적(ha)		매출액(만 위안)		수출(만 달러)	
화훼(Total)	1,120,276	(100.0%)	12,077,147	(100.0%)	53,265	(100.0%)
1. 절화	59,382	( 5.3%)	1,354,098	( 11.2%)	27,907	( 52.4%)
2. 분재	99,775	( 8.9%)	2,677,167	( 22.2%)	10,526	( 19.8%)
3. 관상묘목	637,723	( 56.9%)	6,159,261	( 51.0%)	4,817	( 9.0%)
4. 식용·약용 화훼	205,770	( 18.4%)	1,018,132	( 8.4%)	187	( 0.4%)
5. 공업용 화훼	58,816	( 5.3%)	290,923	( 2.4%)	4,490	( 8.4%)
6. 화훼잔디	38,443	( 3.4%)	220,737	( 1.8%)	0	( 0.0%)
7. 화훼종자	5,112	( 0.5%)	33,877	( 0.3%)	291	( 0.6%)
8. 화훼묘목	10,723	( 1.0%)	224,802	( 1.9%)	3,671	( 6.9%)
9. 화훼종구	4,471	( 0.4%)	83,351	( 0.7%)	107	( 0.2%)
10. 건조화	62	( 0.0%)	14,798	( 0.1%)	1,269	( 2.4%)

자료: 중국농업국

그림 3-1. 분재 재배 면적 및 매출액 변화 추이, 2001-2012



자료: 중국농업국

○ 2012년 분재의 재배면적은 99,775.11ha,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분재의 매출액은 26,677,167만 위안으로 전체의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분화 재배면적은 전체 분재식물 재배면적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분경과 화단식물이 각각 16.3%, 26.5%로 나타났다. 년도에 따라 비율이 변동하였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

- <그림 3-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분재 재배면적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12년 중국 분경 매출량은 57,671만 분이며, 매출액은 50.2억 위안이다. 2012년 분재 매출액은 267.7억 위안이며, 2011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분재 매출량은 61.3만 분으로 2011년보다 23.5% 증가하였다. 분재식물의 매출액은 173.38억 위안이며, 분재류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다.

## 1.2. 유통구조

○ 분재는 화훼 유통경로를 따라 유통되는데, 화훼 유통경로는 크게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鄒美霞, 2010).

- 첫째, 「생산자 → 소비자」 직거래이다. 보통 도시 근교의 화훼 생산자가 해당되며 생산자가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애호가들이 취미 단체(동호회)를 통하여 직접 분경원에 가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의 분경사진을 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 둘째, 「생산자 → 소매업체 → 소비자」 경로인데, 꽃집이나 가판(좌판) 등이 소매업체에 해당된다. 중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운 경우에 적용된다. 중저가 품의 유통경로이다.

- 셋째, 「생산자 → 도매업체 → 소매업체 → 소비자」인데, 생산 규모가 크고 소비자와 거리가 먼 경우에 이러한 유통방식을 선호한다. 저가품의 유통경로이다.

- 넷째, 「생산자 → 대리업체 → 소매업체 → 소비자」이다. 생산자가 대리업체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입품은 이러한 유통형태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 다섯째, 「생산자 → 대리업체 → 도매업체 → 소매업체 → 소비자」이다. 대리업체가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수출하는 경우 이 구조를 많이 따른다.

## 1.3. 소비동향

○ 분재는 주로 50대 이상의 마니아 계층 소비와 명절(춘절 등) 선물용으로 판매된다. 최근 경제 성장의 정체와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三公消費 억제)으로 선물용 분재시장(고급 수목, 심비디움 등)은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내 인테리어 등 식물 소비의 대중적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이다.

- 분재시장에서 고가의 선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차(茶) 문화와 분재를 융복합하는 전시회 등 새로운 형태의 고가분재 수요가 형성되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이 수요층은 분재 마니아이므로 지출 수준도 높다. 진기하고 특이한 분재, 고급스럽고 예술성 높은 분재, 희귀한 수종의 분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재 스타일은 주로 수목분재(樹木盆景), 수한분재(水旱盆景), 화초분재(花草盆景) 등이다.
  - 가장 선호하고 시장성이 좋은 수종은 소나무(해송)이며, 또한 매화, 난초, 은행나무, 느릅나무 등도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수종이다. 소비자들이 분재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품종과 외관(형식과 수형)이다.
  - 최근에는 중국식 복고 스타일의 분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한다. 복고식 스타일은 원근감과 고태미가 잘 드러나는 모양의 분재이다.

표 3-3. 산지별 분재의 장단점

한 국 산	일본산에 비하여 자연미는 있지만 마무리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산에 비하여 작품성이 우수하나 솔잎 길이가 약간 짧은 것으로 평가.
일 본 산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임. 자연적인 멋보다 인공적임.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중 국 산	분재기술의 저하로 상품성 있는 상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평가임. 강하면서 웅장함.

자료: aT 출장조사결과

- 중국에서 수입 분재의 선호는 일본산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인지도가 낮다. 2012년까지 대만산(주로 중국거주 대만 바이어가 취급) 수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족 바이어가 늘면서 일본산 수요가 많은 편이다.
- 수입산 분재에서 선호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일본산 분재에는 소나무(松樹), 측백나무(栢樹), 단풍나무(楓樹) 등이고, 대만산에는 진백나무(眞栢), 나한송(羅漢松) 등이다. 한국산에는 적송(赤松), 진백나무(眞栢), 모과나무(木瓜), 주목나무(朱木) 등이다.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소나무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대만이나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해 일부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분재에서 일본산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산 분재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분재 생산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나 중국산보다는 5~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한국산 분재의 상품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분재 기술력이 아직 우위에 있어 품질경쟁력은 있지만, 중국의 분재 기술은 매우 빠르게 향상

되고 있다. 분재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

- 애호가들은 한국산 분재가 일본산보다 자연미(일본산은 인공미가 강함)가 있다고 한다. 중국 분재가들은 한국산 분재에서 모과, 낙상홍, 향나무, 피라칸사스 등이 흥취가 있다고 말한다.
-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에 비해 품종이 다양한 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마무리 작업이 취약하다는 평가이다.
- 일본의 유럽시장에 대한 분재수출이 주춤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재배·유통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 2. 조경수·분재의 수출입

### 2.1. 수입 동향

- 중국의 수목류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2010년부터 수입액이 크게 상승하였다<표 3-4>. 중국의 최근 5년 연도별 수목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64.0% 높아 수입증가가 가장 많았다.

표 3-4. 중국의 수목류 수출입 현황, 2001-2015

년도	수출			수입		
	수출량 (만 주)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수입량 (만 주)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2001년	29,279	7,495	0.03	471	2,852	0.61
2002년	25,015	11,315	0.05	529	5,647	1.07
2003년	26,442	14,070	0.05	368	9,651	2.62
2004년	16,338	21,035	0.13	177	7,336	4.14
2005년	18,833	24,350	0.13	106	5,534	5.21
2006년	17,599	26,784	0.15	514	831	0.16
2007년	21,325	30,785	0.14	54	766	1.43
2008년	12,012	30,922	0.26	78	624	0.80
2009년	23,130	51,932	0.22	60	1,804	2.98
2010년	19,598	56,377	0.29	259	8,223	3.18
2011년	13,331	46,995	0.35	222	21,512	9.70
2012년	11,192	52,549	0.47	147	22,714	15.42
2013년	12,535	76,673	0.61	334	37,251	11.14
2014년	33,866	192,197	0.57	91	43,448	47.82
2015년	119,319	69,373	0.06	168	45,673	27.16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대만, 남아공,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의 수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산 수목이다.

○ 수입 수목 시장을 보면 나한송과 같은 일본 수종을 흔히 볼 수 있고, 동백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된다. 이는 일본의 수형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높은 예술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본식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본 수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일본에는 호경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내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문 수출업체들이 개별 농장을 찾아가 값싸게 내놓은 조경수를 수집·취합하여 중국으로 수출한다.

표 3-5. 중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목류 수출입 현황

구분	국 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만 주)	금액(천 달러)	물량(만 주)	금액(천 달러)	물량(만 주)	금액(천 달러)	물량(만 주)	금액(천 달러)
수출	전 체	11,192	52,549	12,535	76,673	33,866	192,197	119,319	69,373
	미 안 마	-	-	-	-	12,700	127,000	-	-
	네덜란드	2,158	15,079	1,870	16,006	2,439	17,063	2,308	15,427
	한 국	964	14,742	1,693	14,595	1,328	13,742	4,872	11,663
	홍 콩	1,117	4,744	1,235	20,663	933	9,543	106,363	6,793
	싱가포르	234	1,550	241	3,555	303	3,196	335	4,729
	기 타	6,719	16,434	7,496	21,854	16,163	21,653	5,441	30,781
수입	전 체	147	22,714	334	37,251	91	43,448	168	45,673
	일 본	-	9,608	3.44	25,650	2	31,874	3	34,393
	대 만	110	6,978	93	6,359	-	3,525	22	2,200
	남 아 공	-	1,147	-	1,545	-	2,353	-	2,552
	우루과이	-	841	-	571	-	1,387	-	680
	네덜란드	11	193	18	273	17	377	68	1,551
	아르헨티나	-	-	-	108	-	1,222	-	-
	기 타	36	4,140	238	3,018	72	2,710	75	4,29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 2.2. 수출 동향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식물의 수출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01년 수출량 29,279만 주, 수출액 750만 달러에서 2013년 12,535만 주, 7,667만 달러로 수출량은 줄었지만 수출액이 열 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미얀마, 네덜란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경수 및 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운남, 광둥, 푸젠, 저장, 장쑤 순이다.
- 한국으로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한 금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이 1,474만 2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수출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조경수 및 분재가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또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조경수 및 분재 수출액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보다 수출액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액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감소폭은 2014년도에 32.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중국의 수목 수출에서 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다.

표 3-6.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 남	866	1,175	1,179	128,458	1,219
광 둥	14,329	15,956	35,778	27,285	28,531
푸 젠	9,531	11,412	11,224	9,975	8,091
저 장	870	577	756	521	576
장 쑤	-	-	76	35	2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중국의 식물 통관 관련 제도

#### 3.1. 통관절차

- 흙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수목은 지정된 해관의 지정 항구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수속을 해야 한다. 수목 수입이 지정된 항구는 <표 3-7>와 같다.
- 통관할 때는 수하인이 비엘(B/L)을 갖고 직접 또는 대리업체를 통해 세관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 구비서류에는 ①패킹 리스트(packing list), ②화물 명세서, ③영수증, ④계약서, ⑤수입 신고단이 있다. 대리업체를 통하는 경우 대리통관위탁서가 필요하다. 이외에 ⑥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비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 ⑦식물수입허가서, ⑧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서가 필요하다.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⑨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준비 서류와 함께 통관신고단을 접수한다.

표 3-7. 수목 수입 지정 해관 및 항구

지역	해관명	항구명
절강성	닝보 (宁波) 해관	宁波北仑港
복건성	샤먼 (厦门) 해관	厦门东渡港
광둥성	선전 (深圳) 해관	沙头角口岸, 蛇口港
	포산 (佛山) 해관	佛山南海港, 顺德勒流港
	판위 (番禺) 해관	番禺莲花山口岸
광서성	난닝 (南宁) 해관	东兴口岸
운남성	쿤밍 (昆明) 해관	磨憨口岸

자료: 수입식물종묘 지정수입항구 조정에 관한 공고(2015년)

- 식물의 통관절차는 주로 다음 절차를 거친다. 세관이 통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화물을 검사한다. 세금을 징수한 후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감독 관리를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에 통관 도장을 찍는다.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세관감독 관리 현장에서 화물을 수령한다. 조경수와 분재는 <입경 동식물 검역심사명부>에 해당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 자체만이 아니라 식물성 유기비료, 식물성 폐기물, 식물제품 가공 후 생긴 자투리 및 기타 식물에 대한 해로운 생물을 모두 검역해야 한다.
- 조경수 또는 분재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정부(중국 임업국)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수종은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CITES 해당 수종이라면 관련 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에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까다로운 검역조건이다. 우선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수목을 수출할 때 뿌리를 감싸는 재배매질(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을 미리 중국 검역국에 보내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수출하기 전에 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수송하여 이식하였을 때 고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수출검역역을 받아야 한다.

### 3.2. C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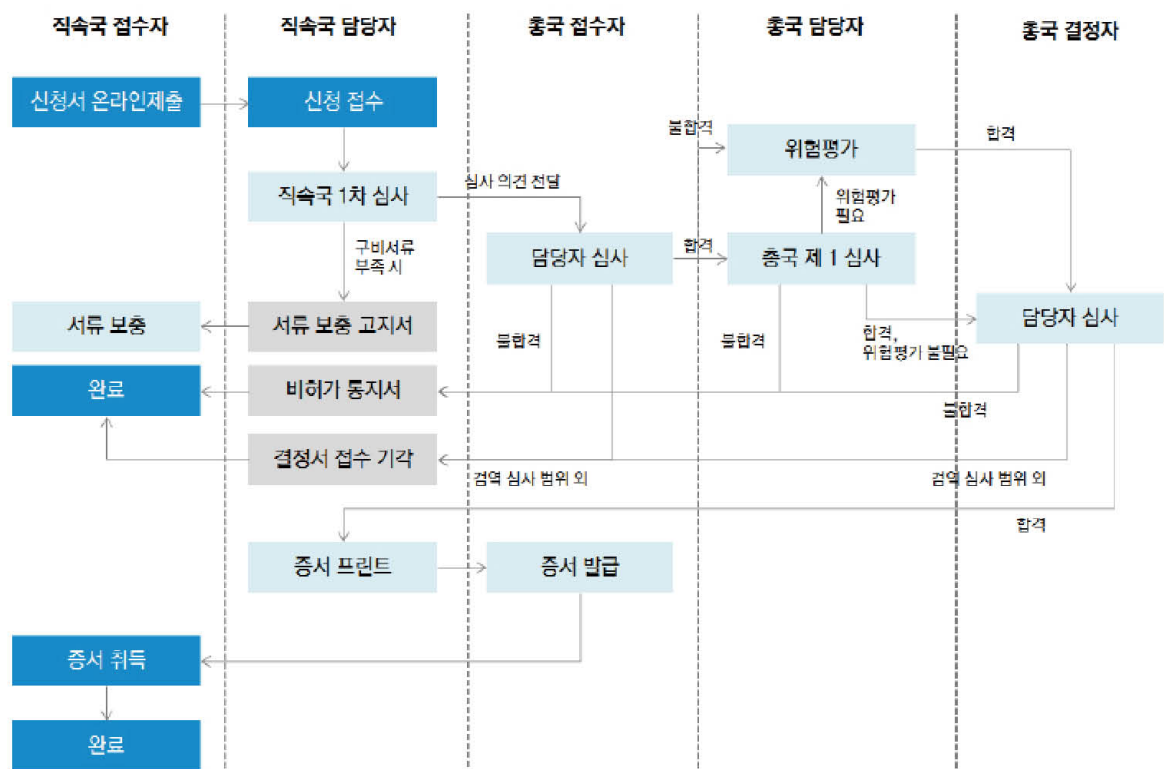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 <멸종 위기종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멸종 위기종 동식물 국제무역 공약>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은 「수출입허가증명서」와 「물종(物种) 증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 3.3.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서

○ 식물검역은 크게 「심사 → 등록 → 검역신고 → 항구검역 → 후속 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물이 재배된 매개체에 대한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중국수출 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검역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수입식물검역허가증 등록 신청서, ②수입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기업코드 사본, ④중국 수출입기업 지역 허가증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부 사본, ⑤기업법인 신청자(수입업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필요에 따라 한국 식물 검역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류, 수입대리업자 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림 3-2. 중국 식물검역허가증 심사 흐름도



자료: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www.ciqcid.com)

○ 수입요목검역허가서 획득은 임업부 또는 농업부를 거쳐야 한다. 임업부는 해당 수목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 수입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면 《引进林木种子苗木及其它养殖材料检疫审批单》를 발급한다. 임업부에서 수입임목종자경영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을 획득하고 수입요목격리재배단지 시설허가증을 획득하고 신청가능하다.

- 허가증 신청에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이 필요하며 발급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첫 수입에서 수입량이 약 50주로 제한되고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해야 한다.

표 3-8.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식물명	지역	금지사유
옥수수종자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유고, 이탈리아, 폴란드, CIS	<i>Erwinia stewartii</i>
대두종자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i>Phytophthora megasperma</i>
감자괴경 (종자용)	미국, 캐나다, 유럽	Potato yellow dwarf virus, Potato mop-top virus <i>Globbdera rostochiensis</i> <i>Clobodlera Pallida</i> <i>Syhchytrium endobioticum</i>
느릅나무( <i>Ulmus spp.</i> ) 묘목 및 삽수	미국, 캐나다, 유럽	<i>Ceratocystis ulmi</i>
소나무( <i>Pinus spp.</i> )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	<i>Bursaphenches xylophilus</i> <i>Hemiberlesia pitysophila</i>
고무나무( <i>Hevea spp.</i> ) 순, 묘목 및 종자	멕시코, 중남미	<i>Microcyclus ulei</i>
담배속( <i>Nicotiana spp.</i> ) 번식재료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i>Peronospora hyoscyami</i>
식물병원체,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 GMO 물질		中国进出境植物检疫法제5조
토양		中国进出境植物检疫法제5조

자료: 进境植物检疫审批名录

- 식물검역규정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흙,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하는데, <표 3-8>과 같다.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지 식물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도 수입할 수 없다.

- 즉, 우리나라 소나무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그 사유는 소나무재선충의 침입 가능성 때문이다.

### 3.4. 식물재배매질 검역

- 중국은 토양(흙)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물을 수입할 때 별도의 재배매질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매질도 심사비준 대상이다.

- 재배매질은 사용되는(즉 재배되는) 지역의 검험검역국, 예를 들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한 다면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여 접수한다.

### 3.5. 식물검역

- 중국에서 조경수 및 분재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식물검역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 2)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행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임, 동식물제품검역법과 관련되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식물제품검역심사(進境(過境)動植物及其產品檢疫審批)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직속 검사검역국(檢驗檢疫局)에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적용 범위에는 수입 동물, 활성 수정란, 싹 및 전염물질, 수출동물 등이 포함되며, 동식물 병원체, 해충 등 유해생물과 감염 식물, 동물의 시체 등 물질은 특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과 「수출입식물과 동물제품 위험분석 관리규정(進境植物和植物產品風險分析管理規定)」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식물번식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 심사 수속을 먼저 하고 무역 계약서에 검역 심사의 검역 요구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 신청기업 혹은 대리인은 식물번식재료 입국 7 일 전에 <입국 물품 검역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정 검역기관에 보내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는 재배지의 농업부와 임업부문 3) 상하이 경우 우선 임업부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증명서(准入證明 2의 심사비준서)를 발급함. 이때, 수입업체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체 혹은 임대 재배지가 있어야 하며 재배지에서 수입 묘목을 격리하여 검역함(적격은 1주일, 많게는 1년~2년까지 격리). 에서 식물검역 심사 비준을 신청 접수한 후 수입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심사비준서를 발급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해 수입하고 기타 성시(省市)에서 재배할 경우 해당 성시의 검험검역국에 접수한 후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관련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역관은 검역에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 관리 감독을 하며,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를 열람 및 복사, 발체할 수 있다.
  - 입국 식물번식재료 검역은 「증명서 심사 → 물품 증명서 검사 → 현장 검역 → 실험실 검역」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검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조경수 및 분재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목에 대한 격리검역을 수개월 실시하기 때문에 조경수와 분재 수입 업체들은 격리검역포(隔離檢疫圃)를 가지고 있다. 수출목도 수입목과 마찬가지로 수출 전에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실시하며, 격리재배 동안 검역소 공무원이 수시로 시설과 격리상황을 체크한다.

- 분재의 경우 격리재배할 때 땅에서 1m이상 위에 보관하며, 조경수에는 태그를 붙인다. 격리보관 장소는 정부가 지정한 곳을 선택하거나 수입자가 제공하는 격리지를 정부가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모든 검역 검사 결과, 수입식물 등에 국무원 농업행정부(농업부)가 정한 식물 유해병해충(해충, 선충 등) 4) 해충은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을 의미하며, 선충 6종, 곰팡이 15종, 세균 3종, 바이러스 6종, 잡초 3종이 해당된다. 및 잡초,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한다.
- 요약하면, 중국에서 모든 재배용 식물류는 중국 정부(중국 임업국, 검역기관)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수출검사에 합격한 다음 수출할 수 있다.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토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수송에 별도의 재배매질을 사용한다면 매질의 샘플을 미리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식물을 수입할 때는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 4. 대중국 분재 수출 가능성

##### 4.1. 분재

- 중국의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인의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여유를 찾는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국에서 일본산 분재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일본 분재업계에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중국의 분재가들도 한국의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대해 관심과 수입 의사를 보였다. 소품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고 1m 이하의 대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다. 소품분재는 일반대중용으로 판매되고 대분재는 전문가 또는 건물장식용이 될 것이다.
  - 다만 소분재는 중국에서도 이미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대분재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일본 분재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 분재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독창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미(美)를 살려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없는, 우리 고유 수종을 분재 소재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이다.

## 제 4 장 외국의 수목 수출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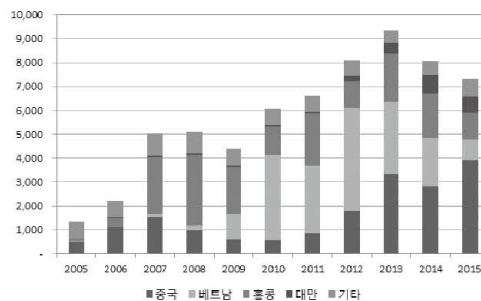
### 1. 일본의 수목 수출사례와 지원제도

#### 1.1. 수출현황

- 지난 10년간 일본의 조경수·분재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수출액은 93억 엔에 이르는데 조경수의 비중이 크다. 조경수·분재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중국, 홍콩이다. 베트남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수목들도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종에는 나한송, 오엽송, 흑송, 배롱나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나한송의 비중이 크다. 수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나한송 등의 일부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다.
  - 2000년경에 처음 대만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목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 수출하였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여전히 대만과 베트남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에서 조경수 수출이 활성화된 것은 고급 조경수를 원하는 중국의 수요와 조경수 시장의 침체를 겪게 된 일본 생산자들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의 정원에 나한송, 소나무 등 큰 나무들을 많이 심었지만 현재는 대형 수목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 수출 초기에는 경기부진과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목들을 싸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중국 바이어 수가 많아졌고 수출전문업체들이 많아졌다.
  - 옛날에는 중국의 최종 구매가격이 일본 판매가격의 10배가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3배 정도라 한다. 일본산 조경수는 가격이 낮으면서 상품성이 뛰어나 중국 바이어의 선호가 높다.

그림 4-1.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주: HS Code 060290 자료: 한국무역협회

#### 1.2. 수출진흥 정책

- 수목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 일본은 나한송을 비롯하여 조경수와 분재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잘 다듬어 수형 좋은 나무들이 인기가 높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

물 수출확대방안”에서도 수목을 중요 품목으로 다루며, 중국을 안정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 치바현은 나한송 수출이 활발한 지역인데, 폐업하는 생산자의 조경수 또는 농가주택의 정원수 등을 구입하여 수출 상품으로 가꾸어 수출한다. 이렇게 수출하는 나한송은 100~200년 이상의 나한송이다.

표 4-1. 수목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주 체	역 할
수출업자	- 수출업자는 JETRO를 통한 해외 바이어 초빙, 견본시장 출전, 국내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나한송 이외의 식목 분재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홍보함. - 2017년 세계분재대회(사이타마)에서 PR을 협력.
JETRO	- 견본시장에 일본 파빌리온 출전과 해외 바이어를 초빙한 국내상담회의 개최,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정보제공.
전국꽃나무수출협회	- 검역과 통관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의 검역과 통관절차를 조사하고 대응방법 검토. - 식목의 선충대책으로 재배단계부터 예방하는 기술의 정보 수집과 공유,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세미나 개최.

자료: 농림수산성

- 일본에서 수출하는 나한송은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데 예비검역에서 합격해야 한다. 수출 전에 CCIC Japan(중국검험인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포장(圃場) 검사를 하며, 때때로 중국 검역당국의 담당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 일본은 분재 수출도 많다. 정교하게 잘 다듬은 분재들이 애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산 분재의 평가는 높지만 일본의 분재 공급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틈새를 한국산 분재가 파고들 수 있다.

### 1.3. 수출에 필요한 기술

#### 1.3.1. 수출 수목의 전처리 작업

- 피트모스, 살선충제, 소석회, 부직포 자루(휴차단용)를 준비한다. 피트모스는 산성이므로 소석회로 pH를 조정한다. pH 4.5 ~ 5.5에서 식물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 ①뿌리를 씻어 토양을 제거한다. ②부직포 자루에 나무를 담는다. ③새로운 배토(피트모스)에 혼합할 살선충제를 준비한다. ④피트모스와 살선충제, 소석회를 혼합한다. ⑤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부직포 자루째 나무를 넣고 배토를 채워 입구를 묶는다. ⑥출하할 때 나무를 굴취하여 바깥의 배토를 털어낸다. ⑦부직포자루 바닥에 앞(④)에서 만든 피트모스를 깐다. ⑧나무를 자루에 담고 피토모스를 채워 넣는다. ⑨뿌리 포장을 한다.
  - 부직포를 지면에 묻으면 급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뿌리가 활착하기까지 관수를 하는 편이 좋다. 식물상태에 따라 3개월 정도면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 피트모스가 변성하면 수



입국에서 토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1.3.2. 수출 수목의 적재 방법

- ①큰 통에 살충제(란네트 800배 희석액 등)를 준비한다. ②약제에 수목의 뿌리 부분을 담가 살균한다. 식물검역을 받은 다음 ③컨테이너를 수목 적재장소로 가져온다. ④컨테이너에 수목을 적재하고 ⑤그 위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배달 도중에 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컨테이너를 닫고 출하 항구로 보낸다.
  - 온도 설정에도 주의한다. 주목이나 팡팡나무류는 2°C 정도, 나한송은 5°C 정도가 적당하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오픈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다.

### 1.3.3. 수출 수목의 양생기술

- 수목을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 팡팡나무, 나한송, 주목, 오염송의 뿌리 세척과 이식 적기는 각각 4~7월, 3~7월, 3~5월, 3월이다. 뿌리를 씻고 피트모스에 이식한 다음, 차광율 60% 정도의 환경에서 2~3개월 양생한다.
  - 뿌리를 세척하고 이식한 다음 차광에 더해 폴리시트로 지상부를 덮어주면 가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잔뿌리가 증가하여 품질이 향상된다.
- 수목의 뿌리 세척은 수도보다 약간 높은 압력(2.5kgf/cm<sup>2</sup>)의 유수로 한다. 공압 세척은 뿌리를 다치게 하므로 피한다. 피복한 폴리시트는 피복 1~2개월 지나면 조금씩 구멍을 내어 서서히 환경에 적응시킨다.
  - 피트모스는 보수성이 좋으므로 과잉 관수를 하지 않는다. 반년 재배하면 뿌리가 완전히 재생하여 장기수송을 견딜 수 있다.

### 1.4. 시사점

- 일본은 중국과 EU 등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한 경험이 많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첫째, 좋은 수목이 있다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하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 키우고 다듬은 나무들인데 이에 대한 외국(중국)의 선호는 매우 높다. 일본은 우수한 수예 기술로 수목을 생산·수출하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둘째, 수목 수출에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수목 수출을 하려면 해외 바이어 상담, 박람회 참석 지원, 검역 대응 기술지원,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셋째, 수목 수출에 필요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참고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출 전 수목의 세척 및 양생, 포장·적재, 수송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노하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넷째, 수목 검역협상의 필요이다. 일본은 중국과 검역 협상을 통해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것

으로 보인다. 물론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대신 중국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를 받는다.

- 다섯째, 홍보 활동이다. 박람회 참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국제 수준과 경쟁하며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일본의 수목 수출을 위한 박람회 참가 활동을 참고해야 한다.
- 여섯째, 수목 수출에는 식물과 정원문화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수목 수출이 가능한 것은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외국 구매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2. 네덜란드의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 2.1.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 네덜란드는 조경수 생산에서도 오랜 역사와 발전된 기술력을 자랑한다. 조경수 유통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고, 수십여 나라에 수출하면서 수목 수송과 포장 등 유통 전반에서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달하였다.
- EU에서 조경수(산림수) 수출입은 활발하지만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크다. 2015년 기준 EU의 산림수 수출액은 1억 1,007만 유로, 수입액은 6,218만 유로에 이르지만, 수출액의 91.7%, 수입액의 99.5%를 역내 교역이 차지한다.

표 4-1. EU의 수목 수출입

구 분	국 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천유로)	(톤)	(천유로)	(톤)	(천유로)	(톤)	(천유로)
수 출	역 내	91,042	118,415	67,650	101,697	71,501	111,706	67,765	100,929
	독 일	16,386	35,021	13,612	28,830	13,414	30,982	10,316	22,315
	영 국	31,793	20,577	19,265	18,901	22,366	19,513	8,666	21,955
	프 랑스	14,937	25,528	11,480	22,200	11,294	21,403	11,434	20,890
	네덜란드	3,024	3,952	2,416	2,784	2,145	2,948	2,945	3,078
	역 외	4,133	10,553	3,287	7,512	2,865	8,539	4,087	9,145
	일 본	1	14	-	4	-	-	-	-
	중 국	3	21	-	-	1	19	1	1
	한 국	-	-	-	-	-	-	1	8
수 입	역 내	58,736	80,534	44,905	66,659	62,276	63,973	66,527	61,875
	네덜란드	29,058	37,638	26,433	32,664	26,247	31,473	20,515	34,882
	독 일	3,452	8,969	3,414	7,857	3,689	8,239	3,456	7,119
	이태리	9,130	7,611	4,611	6,809	3,293	4,677	3,589	4,726
	역 외	77	433	111	527	121	227	47	311
	일 본	15	1	-	6	20	38	7	87
중 국	-	-	3	34	3	51	6	79	

주: HSCode 0602.9041(forest trees)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이고,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네덜란드가 수입하는 수목들은 대부분 다른 EU국가로 재수출된다.

○ <표 4-2>은 EU의 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역외 수출입에서 남미와 동남아 등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있지만 동북아 국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EU 수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분재가 포함된다.

- 유럽에서 고가 분재는 일본산, 저가 분재는 중국산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에 식물과 식물제품을 판매하려는 네덜란드 수출업자들은 상대국의 식물검역조건, 재배자 권리, 관세, 그리고 무역장벽 등을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극복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요한 수출국에서 무역장벽이 억제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 2.2. 시사점

○ 네덜란드는 꽃과 수목의 생산과 유통에서 선진화된 나라이다. 수목 생산을 규모화·기계화하여 생산성이 높다. 마케팅에서 네덜란드산 식물을 앞에 세우기보다 식물의 가치와 효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해결에 나선다. 수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활발한 것도 특징이다.

○ 네덜란드 화훼와 수목 산업은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에 특화하여 발전하였다. 수출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든 어디든 안정된 품질로 전달할 수 있는’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수목 생산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 식물자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식물자원도 상품화하기 위한 품종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성공에는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내수 시장을 더욱 키우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수목을 세계인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식물 관련 박람회와 정원문화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생산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장벽 해결에 노력한다.

## 제 5 장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 현황

### 1.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분석(SWOT)

-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수출 여건을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대응과제를 탐색하였다.
- 조경수와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여건 분석을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회 요인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쇠가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 중국의 조경수·분재 생산업계의 성장, 일본산과의 경쟁 등은 위협 요인이다. 차별화하여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은 적지 않다.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배롱나무, 단풍나무, 주목 대형 특수목에 관심을 보인다. 분재에서는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규격의 수종이 대량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생산자들이 수출가능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도 있다. 국내 생산기반이 영세하다는 점, 해외 홍보가 미흡하여 중국 바이어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약점이다.

표 5-1. 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의 여건(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환경	<b>&lt;강 점(S)&gt;</b> ● 수출가능 자원 보유 ● 재배기술 축적	<b>&lt;약 점(W)&gt;</b> ● 생산·유통 기반 미흡 ● 중국 바이어의 인식 부족 ● 검역대응 기술부족
<b>&lt;기 회(O)&gt;</b> ● 중국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 ● 중국 바이어의 방한	<b>&lt;우선 수행과제&gt;</b> ◆ 수출가능 자원 조사	<b>&lt;우선 보완과제&gt;</b> ◆ 생산·유통 체제 정비 ◆ 홍보강화/국제박람회 참석 ◆ 검역대응 기술개발 ◆ 수출특화단지 지정
<b>&lt;위 협(T)&gt;</b> ● 일본산과의 경쟁 ● 중국 조경수·분재업 성장	<b>&lt;위협 해결과제&gt;</b> ◆ 새로운 시장 개척	<b>&lt;장기 보완과제&gt;</b> ◆ 정원문화 확산과 교류 ◆ 신제품 육성

## 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

### 2.1. 기본방향

- 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조경수와 분재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를 비전으로 하고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들을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대중국 조경수 수출에서 타깃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부유층 정원 또는 민간건물(호텔 등) 정원에 쓰이는 정원수가 될 것이다. 수형이 좋은 대형 특수목 시장이다. 또, 분재 수출에서는 전문 분재애호가 그룹이 대상이 될 것이다. 분재 애호가는 젊은층보다 고학력 중장년층 이상의 부유층이 될 것이다.
  - 조경수·분재 수출에서 품질의 고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마케팅, 생산체제 정비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5-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과제(안)

비 전	“조경수·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	
목 표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	
부문별 과제	생 산 · 유통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 생산체제 확립</li> <li>· 수출특화단지 조성</li> <li>· 유통구조 개선</li> <li>· 검역대응체제 구축</li> </ul>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분재 수출가능자원조사</li> <li>·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바이어 관리</li> <li>· 국제박람회 참석</li> <li>· 신규시장 개척</li> </ul>
	기 술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 수출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연수</li> <li>· 수출식물의 무균 인공토양 개발</li> <li>· 수출식물의 세척, 포장·적재 기술개발</li> <li>· 살충제 개발</li> <li>· 수목병해충 해석에 관한 기초연구</li> <li>· 고유 수종의 분재소재 개발</li> </ul>
	문 화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분재 홍보</li> <li>· 공항주변 수목 식재, 국제행사 분재전시</li> <li>· 정원문화 교류</li> </ul>

## 2.2. 실천과제

- 조경수 산업과 분재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이다.
- 먼저, 생산·유통 체제 정비이다. 안정 생산체제 확립, 수출특화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검역대응체제 구축이 과제이다. 수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하며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 생산자들이 보유한 수출가능 자원을 모으고 검역에 공동 대응하는 수목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홍보 강화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과 규격에 부합하는 자원을 조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홍보와 바이어 접촉을 위해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바이어 초청 사업도 필요하다. 기존 바이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분재 잡지 또는 여행 잡지에 한국 수목(분재)의 매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다면 홍보효과가 크다. 중국이 매우 큰 시장이지만 홍콩, 베트남, 대만,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 셋째, 기술개발이다.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하면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 개발이 중요하다. 수출식물의 재배매질, 수출식물의 뿌리세척과 포장·적재 기술, 살충제, 뿌리양생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 수종을 조경수 또는 분재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차별화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넷째, 문화 구축이다. 한국 조경수·분재의 미(美)를 알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의 정원문화를 홍보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높은 공항 주변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조경수를 심고 공항 내부 또는 국제행사장에 고급 분재를 진열하는 것이 방안이다. 중국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국내에서 꽃과 나무를 즐기고 이해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수출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의제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권용허가 - 지적변경가능 (임야→잡종지)</li> <li>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li> <li>평균경사도 기준 (25도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열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지적변경 금지(임야→잡종지)</li> <li>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li> <li>평균경사도 기준(16도 이하)</li> <li>(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gt;경보공개&gt;법령정보&gt;최근제·개정법령&gt;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li> </ul>	산지관리법 시행령 ('18.12.4)
			산림청 산지경리과 (042-481-4123)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79개 품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li> <li>(참고) 산림청 공식 블로그&gt;목목(업포/카드뉴스)&gt;규제혁신 미래 산산업 규제 혁파</li> </ul>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19. 1월)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 (042-481-4194)
3) 산림복지소외지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초생물수급자, 장애(아동)수급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연면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li> <li>(참고) 산림청 홈페이지&gt;말뼉마당&gt;광고&gt;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li> </ul>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1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6863)
4) 해외산림인턴 참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li> <li>6개월 근무기본 (4~6개월 협력목 분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li> <li>6개월 근무 기본 (4~10개월) 단박목 운동</li> <li>(참고) 산림청 홈페이지&gt;영광 경력&gt;말뼉마당&gt;2019년 해외산림인턴 모집공고</li> </ul>	'19년 해외산림인턴 시행계획 ('19. 12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6863)
5)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강화	특별관리 임산물 포장 규격 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검사 합격증 부착이 가능한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li> <li>(참고) 산림청 홈페이지&gt;경보공개&gt;법령정보&gt;최근 제·개정 법령&gt;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임업진흥법 시행령 ('19. 1월)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 (042-481-4203)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짐차·모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야의 경우 묘지장부·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영농인 연락처 등·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서 또는 임종서부를 준비하여 등록가능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계피),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식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5) 포고자목 : 20천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짐차·모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5)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어디서?

지방산림청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의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함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건을 갖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③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사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 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을 신청서(별지 제1호외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병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대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2.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을 신청서 (별지 제2호외4서식)
  -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통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혜택은?**

절차간소화 및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신청접수 후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 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홍천시·원주시·홍천군 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우)20481 강원도 원주시 배골로 124	전화 033-739-8171~8174 팩스 033-739-8179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강원도 중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2층	전화 033-840-8851~8853 팩스 033-840-8850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창원시·김해시·밀양시·강산시·함안군·창녕군	(우)30003 경북 안동시 하이마로 267, 2층	전화 054-842-7104~7105 팩스 054-842-7105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우)32539 충남 공주시 봉정로고개길 20	전화 041-850-4055~4059 팩스 041-852-8138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우)36710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원로 2311	전화 053-820-4855~4859 팩스 053-820-4849



# 국가공인분재관리사 자격시험 및 소양교육

한국분재조합 국가공인 분재관리사자격검정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였다. 2018. 7. 1(일)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에서 제34회 분재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42명, 11. 3(토)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에서 제35회 분재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12명, 12월 16일 (일)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에서 제36회 분재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62명이 합격하여 총 116명의 국가공인 분재관리사를 배출하였다.(합격자 명단 별첨 참조)

2018년 1월 17일 제32~33회 합격자와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소양(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4회 합격자와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과자에 대한 소양(보수)교육은 2018년 7월 17일 에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35~36회 합격자와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과자에 대한 소양(보수)교육은 2019년 1월 27일 서울에서 실시한다.

한국분재조합 분재관리사 자격검정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일) 자격검정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자격검정위원 위촉시 자격검증 철저 및 분재관리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가공인분재관리사 등급별 합격자 명단

## 제34회 시험장소: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국화홀)

종목 및 등급	합격자
분재관리사 1급	이화옥 유승효 지민귀 조은정 박선덕 장학진 류해룡 김오찬 윤형중 선우영숙 송수길 이상철 신현국 김응식 김문순 조항광 정승주 홍성욱 김동혁 안도현 이귀미 박상훈 오원근 오명운 (24명)
분재관리사 2급	남궁복이 김기용 안도근 차동진 심성보 박성여 황호삼 현상구 한연숙 정민섭 정행성 김시백 권순우 정치덕 백승현 권춘정 신정섭 이종기 (18명)

## 제35회 시험장소: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 비학위 강의실

종목 및 등급	합격자
분재관리사 1급	김정순 나광기 김원태 양광호 김동욱 오원택 이상연 김갑순 (8명)
분재관리사 2급	박정수 정재광 안건수 이희철 (4명)

## 제36회 시험장소: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국화홀)

종목 및 등급	합격자
분재전문관리사	심문보 곽근상 최정호 강윤환 (4명)
분재관리사 1급	이종덕 이경석 안지혜 안건수 박향관 한덕규 황의수 김향숙 김명섭 이종기 박상린 신미정 김동성 공경춘 오현석 채충욱 이용완 김은진 정창호 정종우 조규태 최종환 유종도 임종석 박태열 곽영미 김용곤 한아름 조형복 김영종 김정욱 김태종 김채생 (33명)
분재관리사 2급	나상원 장진아 김주리 이여림 김희중 김다희 현상태 이선아 장광일 이철희 임남재 송영근 홍종국 정혜민 김명호 김연옥 이 덕 김근수 정연근 김미아 박진용 안혜순 박상직 장아름 김영선 (25명)

## 아름다운 우리 말로 표현합시다

섬 잣 나무 ○ ← × 오엽송, 여소송(五葉松, 如小松)

눈 향 나무 ○ ← × 진백, 보백(眞柏, 寶栢)

노간주나무 ○ ← × 두송(杜松)

소 나무 ○ ← × 적송, 육송, 여송(赤松, 陸松, 女松)

곰 솔 ○ ← × 해송, 흑송(海松, 黑松)

아그배나무 ○ ← × 심산해당(深山海棠)

배롱 나무 ○ ← × 목백일홍(木百日紅)

철엽수 ○ ← × 마로니에(Marronnier)

# 경기지부경매장



날짜: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12시

장소: 동막골 분재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2동 137

문의: 박찬수 010-5575-1588

# 인천 솔밭분재·조경 경매장

소나무, 향나무, 주목  
모과나무, 특수목 등  
분재소재 다양

| **개장일시** | 매월 **두번째, 네번째** 수요일 12시

| **참여자격** | (사)한국분재조합원

| **수수료** | 구입가 3%, 판매가 5%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560  
(솔밭분재·조경)

| **문의** | 방용길 010-3763-1243



# 대구지부 분재경매장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12시  
분재·조경수·특수목·중개 경매

대구 초록마을 하상식

**010-3817-8000**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154-30번지



# 산수원

## 국내최대의 분재소재 매장

우수작품 및 소재  
다량 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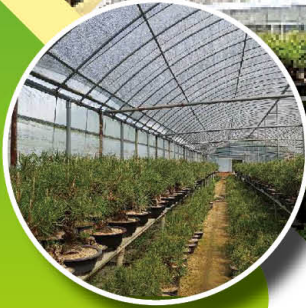
원장 김기종

mobile. **010-8798-52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98-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4-4(마루조경)



# 송화분재농원



대표 전국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1리 396번지  
Tel. 054-292-3976 Fax. 054-292-3976 mobile. 010-4531-3976



## 금산분재조경

총면적 2500평, 하우스 240평, 50여 수종에 100여 품종의 나무를 손수 파종하고 접목하여 정성을 다해 재배한 분재소재목과 조경수 소재 생산 농장입니다.

동아까네, 장수홍, 갑주야매, 모과, 명자나무 등을 묘목단계부터 수준높은 분재소재와 정원수 소재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신다면 결코 후회 없으실 겁니다.

대표 박영현

Mobile. **010-5402-2616**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318 번지



# 묘향산조경

전원주택, 옥상, APT, 베란다조경  
최고급정원수, 수목손질, 묘목관리, 분재소재  
각종묘목, 돌조경(미니조경)

대표 주 응 호

mobile. **010-3453-8194**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37-20

##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분재재배의 기술, 수기, 시, 제언 등  
다양한 글이 분재시대지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 원고 송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2층 III-3호(노은도매시장)  
(34146)

TEL : 042) 822-5037, 5039 FAX : 042) 822-5034

E-mail : bonsai3463@hanmail.net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여 차별이 없으며,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희망 직종!

# 분재관리사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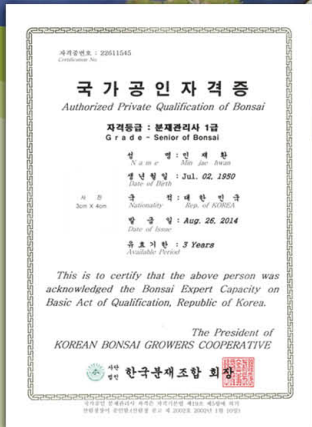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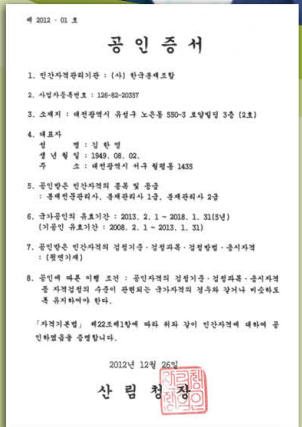
분재전문관리사  
Master of Bonsai

분재관리사1급  
Senior of Bonsai

분재관리사2급  
Junior of Bonsai



필기 및 실기  
대일 간행



## 자격 취득자 무대사항

- ▶ 자격기본법 제 53조 제 3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법령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에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산림청 공고 제2002호, 2002년 1월 10일 승인





##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한국분재조합은 1986년에 창립되어 1991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농산촌민의 소득증대와 분재의 산업화를 추구함에 있다.  
조직을 보면 전국에 걸쳐 각 시도에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  
중앙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 감사 2명, 20명 이내 이사 및 18개 지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는 분재전시회와 분재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The Korean Bonsai Growers Cooperative was launched in February 1986 and incorporated in 1991.  
It was founded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promote bonsai industry.  
It has 18 branch offices across the nation.  
It consists of 1 president 5 vice presidents, 2 auditors, 20(or less) directors and 18 branch office directors. It has promoted bonsai exhibition and education-related projects.

### 한국분재조합원이 되시면

#### 분재소재생산 · 운영 장기저리 융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연리 2% 변동) 조건으로  
분재소재 생산 및 운영자금의 융자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응시자격에 대한 우대

한국분재조합 가입 후 3년 이상된 분에게  
분재관리사 1급 응시자격을,  
조합 가입 후 7년 이상된 분에게는  
분재전문관리사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근의 분재기술 제공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최근 국내외 정보 및 분재기술이 제공됩니다.

#### 분재 문화 창달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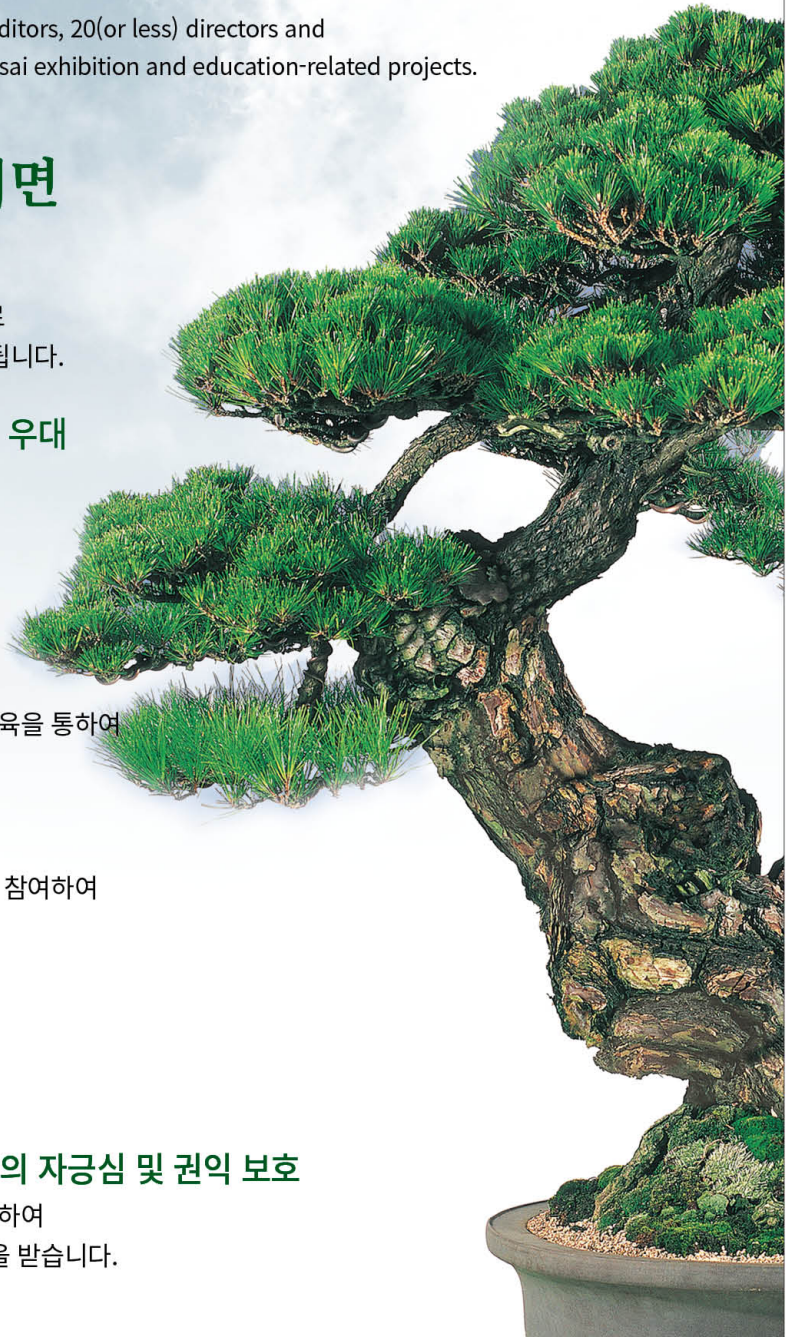
매년 개최되는 한국분재대전 등 지방전시행사에 참여하여  
분재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분재시대誌와 조직을 통한 정보공유

전국 지부별 전시 행사 소식과 만남의 장을 통해  
분재인만의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 생산자와 비생산자가 함께하는 법인체의 자긍심 및 권익 보호

조합 구성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제로 이원화하여  
국내외 모든 분재 동호인들의 권익 보호의 혜택을 받습니다.



# 공주식물원조경(주) 세대건설(주)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문화재수리업(조경) ·  
석공사업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업  
**특수목 소재 구입합니다.**



**대표이사 : 이 영 섭 010-9559-2400**

office : 충남 공주시 미나리3길 6-11

tel : 041.856.2400 / 041.856.2410

fax : 041.854.3637

E-mail : ggsm2400@naver.com

사단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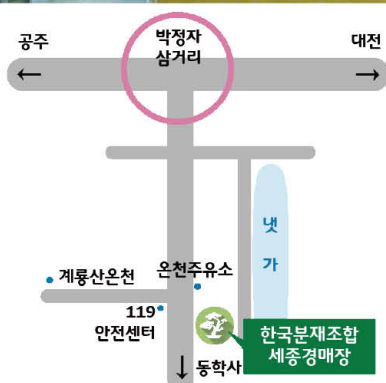
한국분재조합  
세종지부

# 세종 분재경매장

**취급품목 : 각종분재, 분재소재일절,  
특수분재, 미니조경수 종류, 야생화 취급**

**※ 유관업종 사업자 등록 사장님은 참여 가능합니다.**

**개장일시 :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12시**



문의(총괄회장) **최 정 호**

Mobile. **010-5428-4110**

문의(운영팀장) **오 석 지**

Mobile. **010-8816-3084**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00-1



# 양지분재원

작품 분재 / 분재 소재 / 석부작 전문 / 선물용 분재



원장 이복열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679  
Mobile. **010-5468-2635**